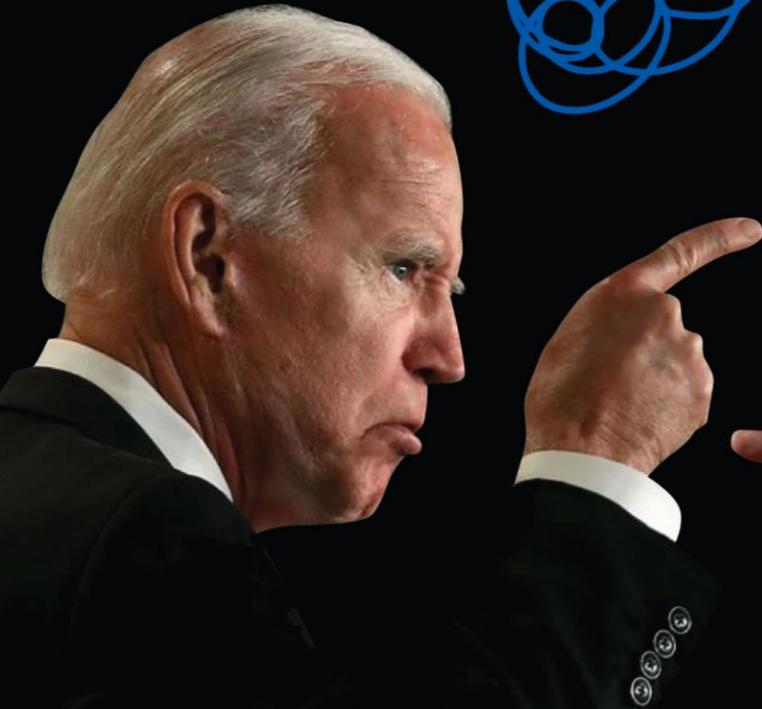


2020 미국 대선

: 난장판 (BEDLAM)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3773-8515
연구원. 이재운, 3773-8921



2020 미국대선

2020-11-05

난장판(BEDLAM)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그는 지난 주 유세에서 우편투표 접수 시한을 대선 이후로 연장한 결정을 비난한 바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난장판(bedlam)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여론조사 결과를 비웃듯 주요 경합 주에서 선전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고, 서로 승리선언이 나오기도 했다. 끝내 주요 경합주에서 재역전한 바이든의 당선은 유력해졌지만, 트럼프는 소송전에 들어갔다. 11/6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펜실베이니아(20명), 11/12까지 인정하는 노스캐롤라이나(15명) 결과와 상관없이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 승부는 결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백악관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의 시작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재역전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만, 아직 승리 확정은 아니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건에서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위스콘신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했다.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12/8까지 개표 관련 분쟁을 마치고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12/14에는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데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26:23 예상).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상원 선거의 결과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의 블루웨이브(blue wave)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기부양책 통과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세워본다면...

바이든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대선은 언제 대통령이 결정되는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졌다. 한 달 가량 백악관 주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투표 결과대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업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신재생에너지에 2조달러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반독점법에 대한 노이즈는 시장의 불안요인이다. 반대로 법적공방 끝에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에는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법인세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은 우려감이 일부 해소되고, 5G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5G 및 장비업체들도 유망해 보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속도조절이 나타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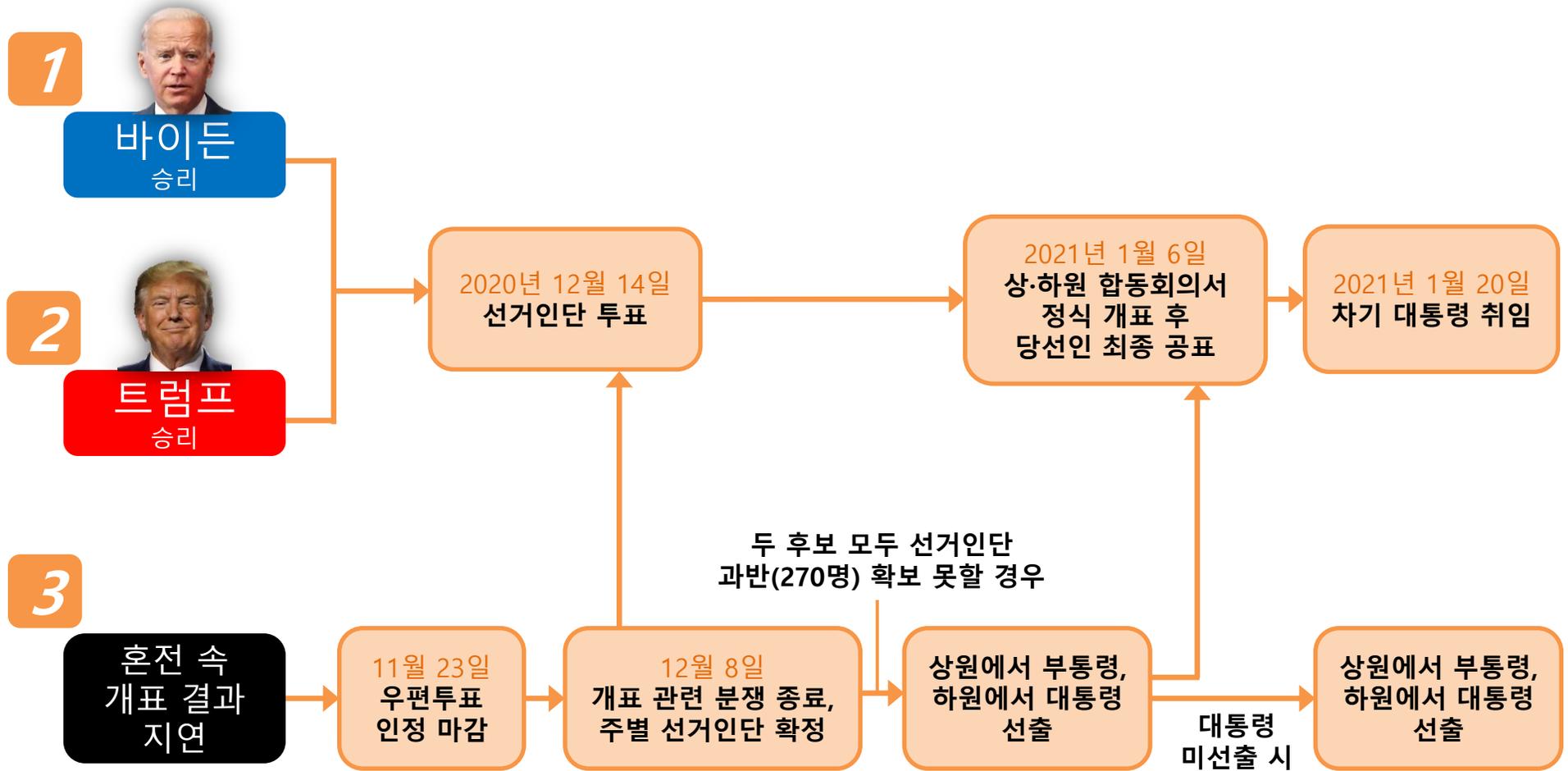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handaehoon@sks.co.kr
02-3773-8515



R.A
이재윤
jyun.lee@sks.co.kr
02-3773-8921

향후 미국 대선 개표 시나리오





중국 견제
(다자외교)

자유무역

연준 독립

법인세 인상

오바마케어
부활

청정에너지
투자

- 법인세 인상은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 테크 및 플랫폼 기업 불리
- 신재생에너지에 2조달러 투자 약속.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리
- 오바마케어 부활로 헬스케어 업종도 긍정적
- 국내: 반도체 등 수출주, 전기차배터리



중국 적대시
(고립주의)

보호무역

마이너스 금리

법인세 인하

오바마케어
폐지

기후협약 탈퇴

- 기존의 정책에서 큰 틀은 유지할 것
- 테크 및 플랫폼 기업, 5G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유리
- 금융주와 제약업종은 불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은 속도조절 나타날 것
- 국내: 반도체, 5G 및 5G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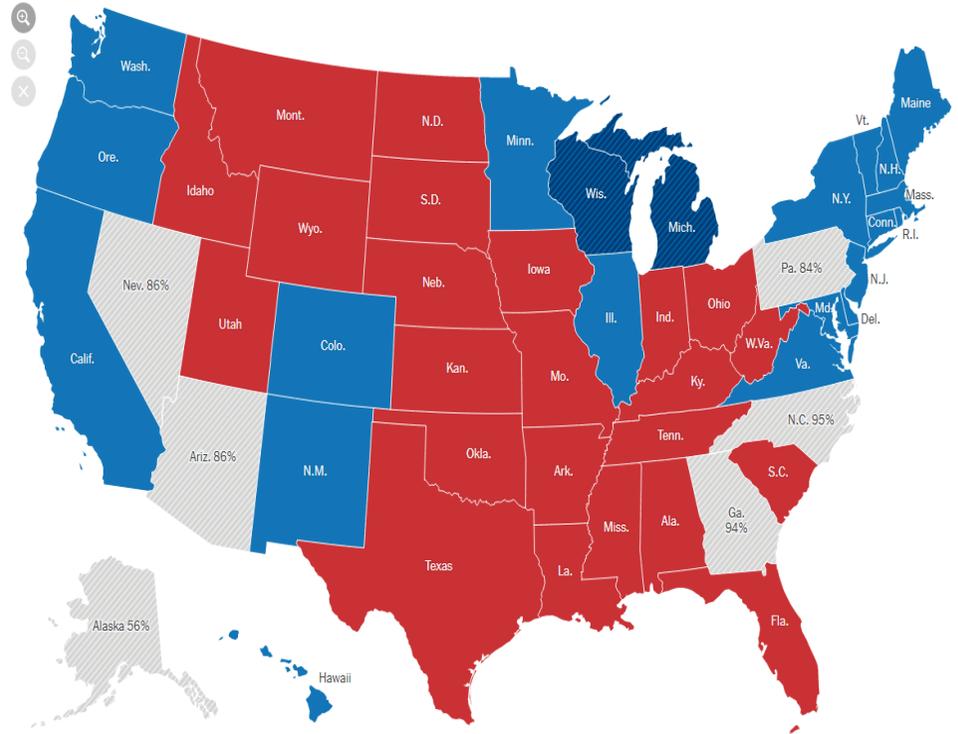
Chapter 1.

끝나지 않은 미국대선

■ 이번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웃은 트럼프

- 2016년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힐러리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뒤졌었음
- 대부분의 예상은 힐러리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
- 예상을 깬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2016년 미국대선 당일,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빠르게 회복
- 트럼프는 당선 이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며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그러나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미-중간 마찰은 그의 부임기간 동안 변동성 확대의 요인으로 지목
- 이번에도 비슷한 대선결과 진행 중
- 여론조사에서 뒤졌던 트럼프는 주요 경합지역에서 선전
- 아직 우편투표가 개봉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결과, 그리고 미시건 등에서의 트럼프의 소송전이 마지막 변수

2020년 미국 대선 중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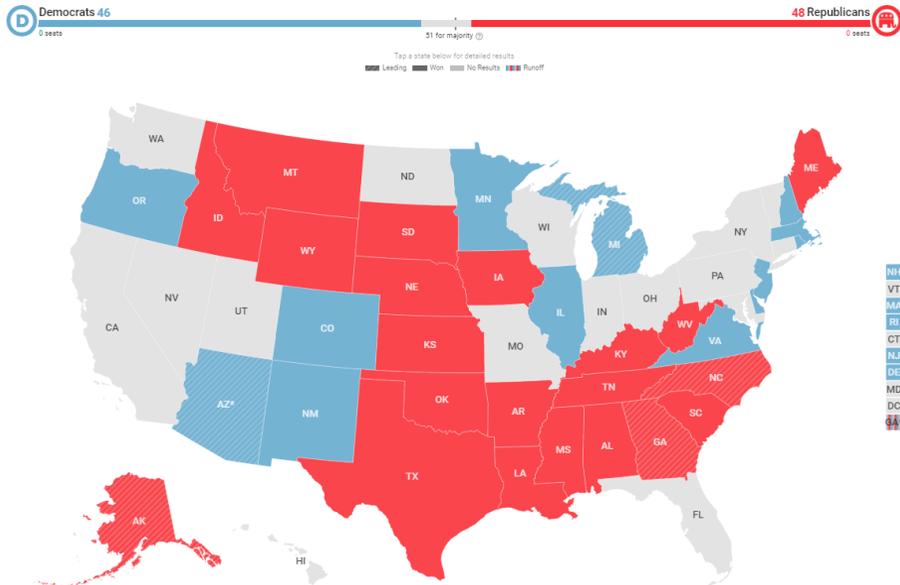


자료 : NYT, SK증권

■ 상/하원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는 빗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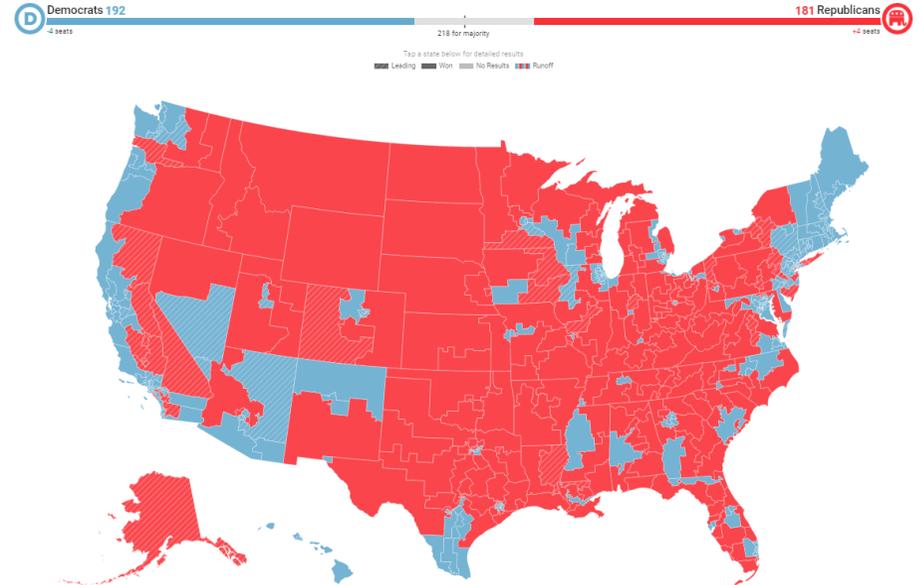
- 미국 의회 선거결과 역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상원의 경우, 공화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이 높아짐
- 민주당이 대통령-상원-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짐.
- 5차 경기부양책의 속도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는 낮아짐. 대선 당일 시장은 이를 반영하며 상승

미국 상원 개표 중간상황 (공화당 48: 민주당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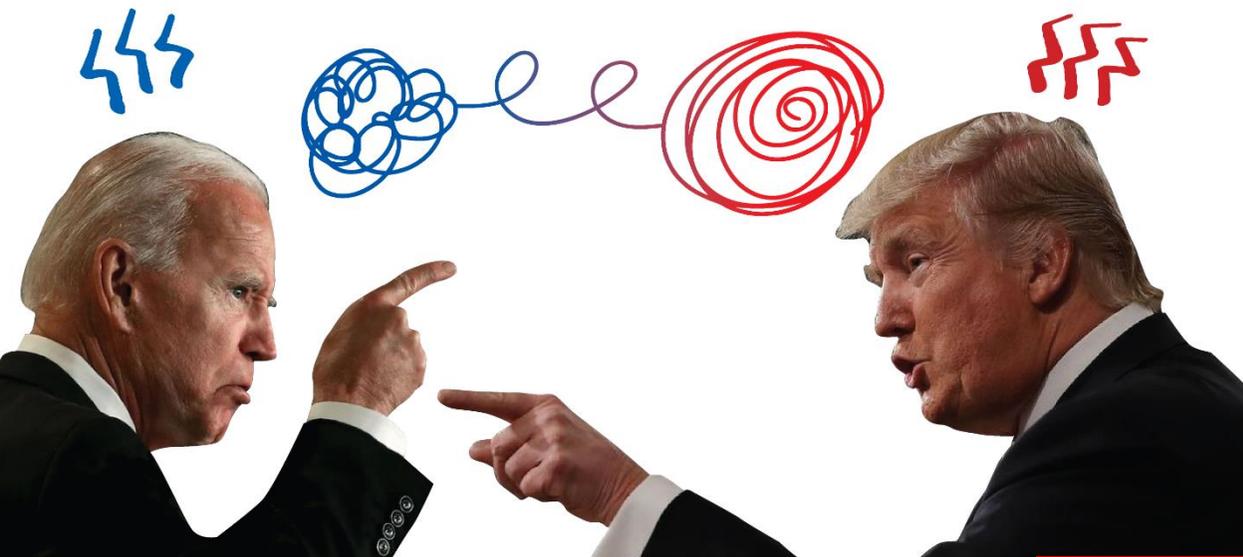


자료 : DDHQ, SK증권 /주: 한국시간 11/4 22시 기준

미국 하원 개표 중간상황 (공화당 181: 민주당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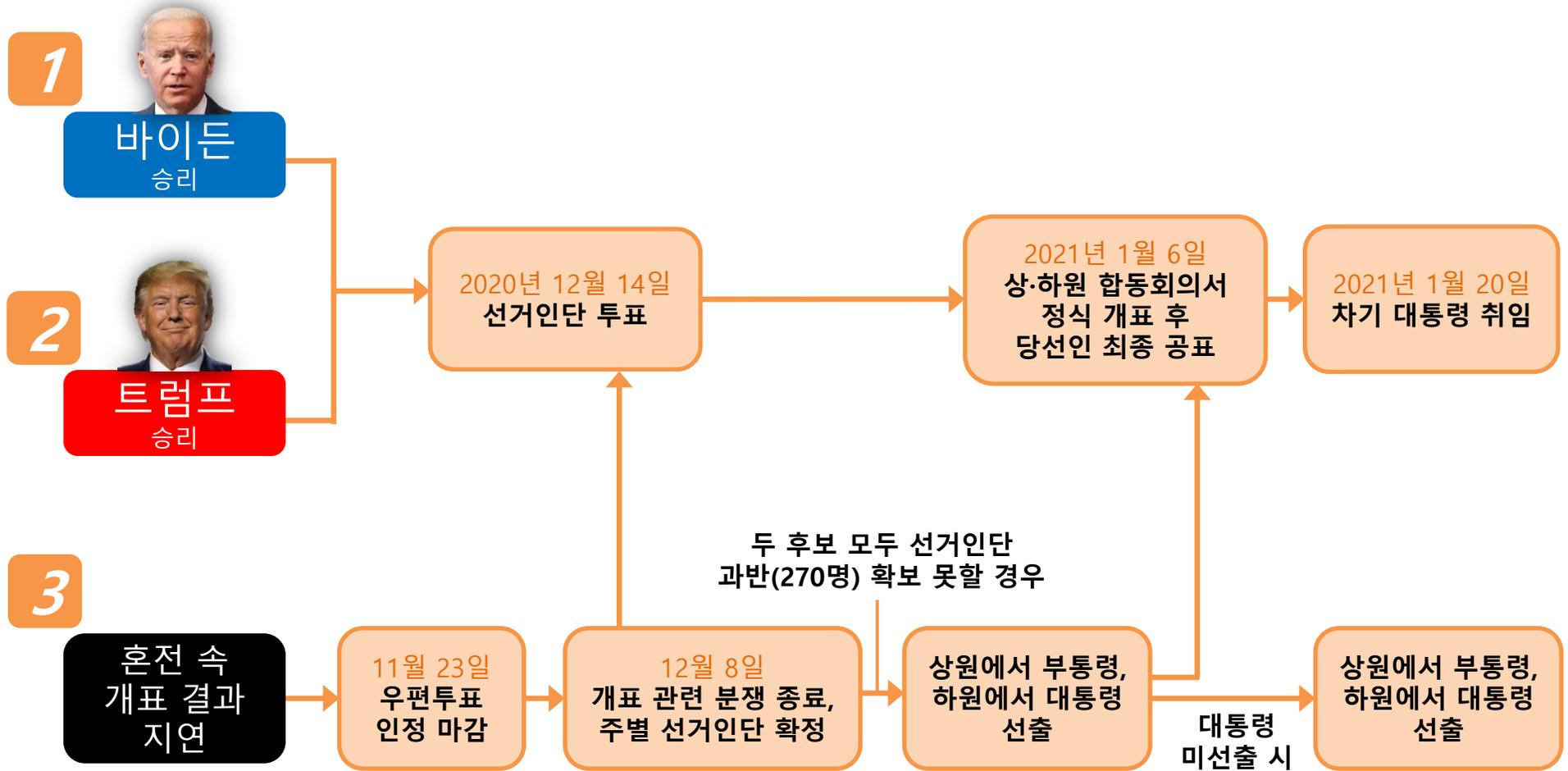
자료 : DDHQ, SK증권 /주: 한국시간 11/4 22시 기준



Chapter 2.

우편투표가 불러온 나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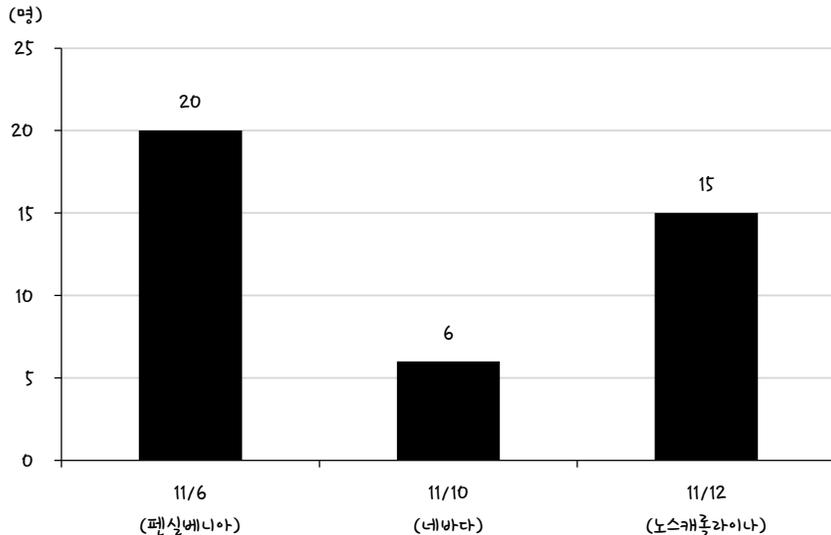
향후 미국 대선 개표 시나리오



▪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후임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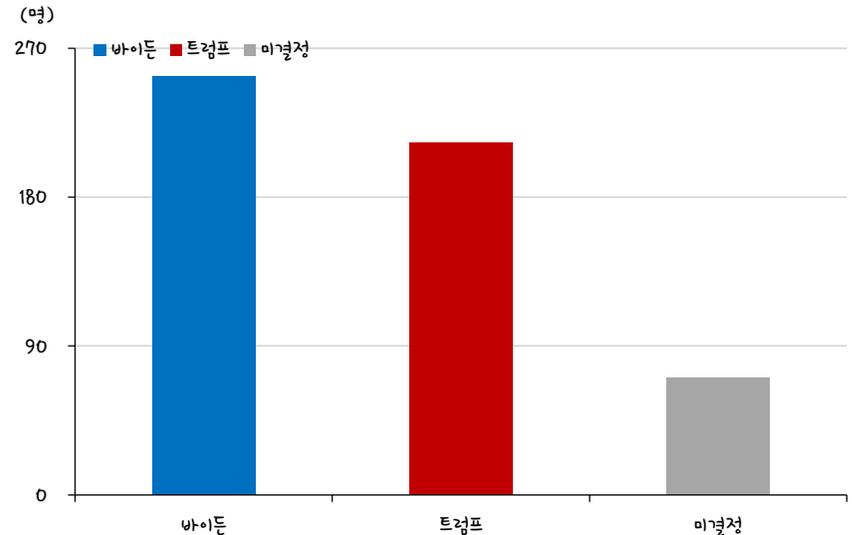
- 이번 미국대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우편투표가 확대로 대선 당일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음
- 실제로 현실화. 트럼프는 여론조사의 예상을 깨고, 주요 경합주의 현장투표에서 대부분 승리
-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사실상 승리선언
- 바이든 후보는 우편투표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
- 특히, 대선 이후에도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지역 중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이 포함
-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아직 과반수 확보한 후보자 없음

현재 남은 경합주 중에서 대선 직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주



자료 : NYT, SK증권

현재까지의 선거인단 확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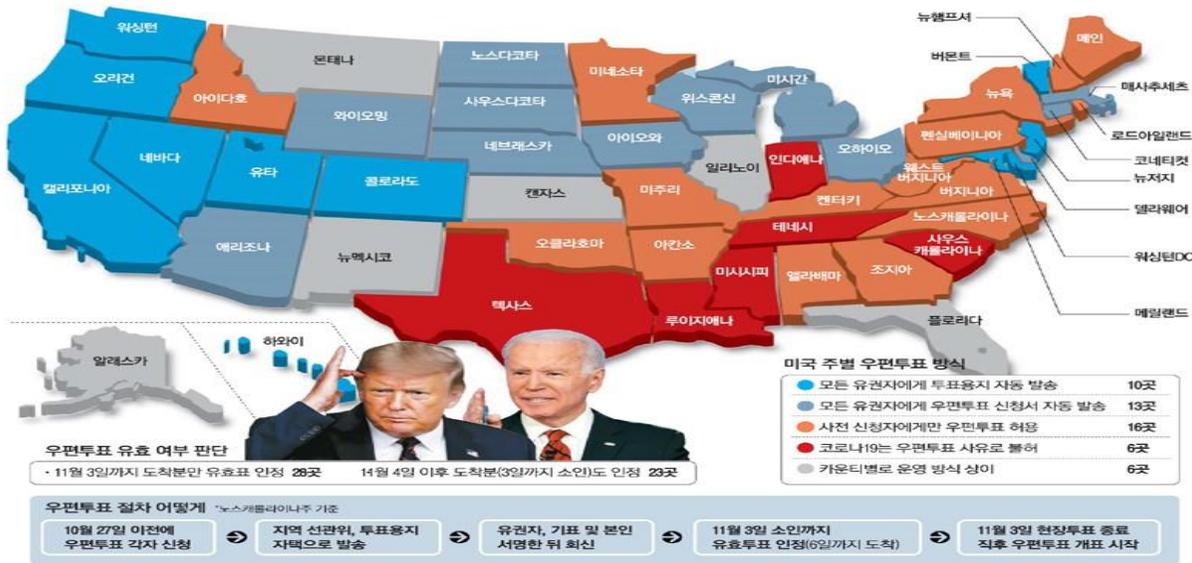


자료 : NYT, SK증권

▪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백악관의 주인은 결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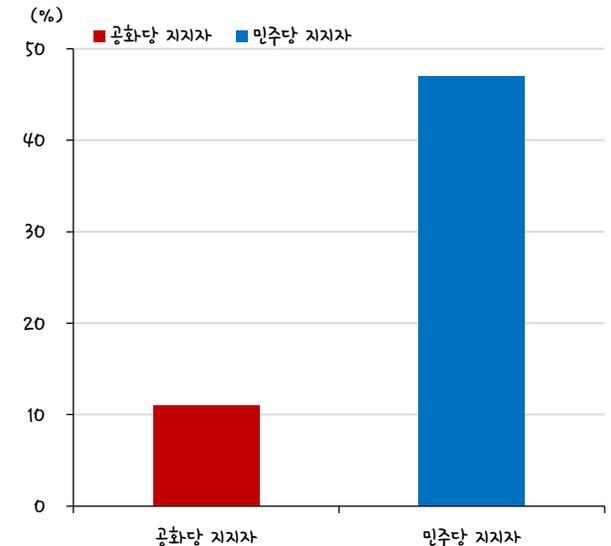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우편투표는 민주당이 우세
- 따라서 현장투표 결과는 트럼프가 앞섰지만, 우편투표까지 합산하면 역전할 가능성도 남아 있음
- 대선 당일의 소인만 적혀있으면 투표를 인정하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우편투표가 이번 대선의 승자를 가릴 것

우편투표 방식과 절차



자료 : 매일경제, SK증권

우편투표를 하겠다는 각 당 지지자들 응답비율



자료 : FOX, SK증권

▪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후임 대법관 임명을 강행한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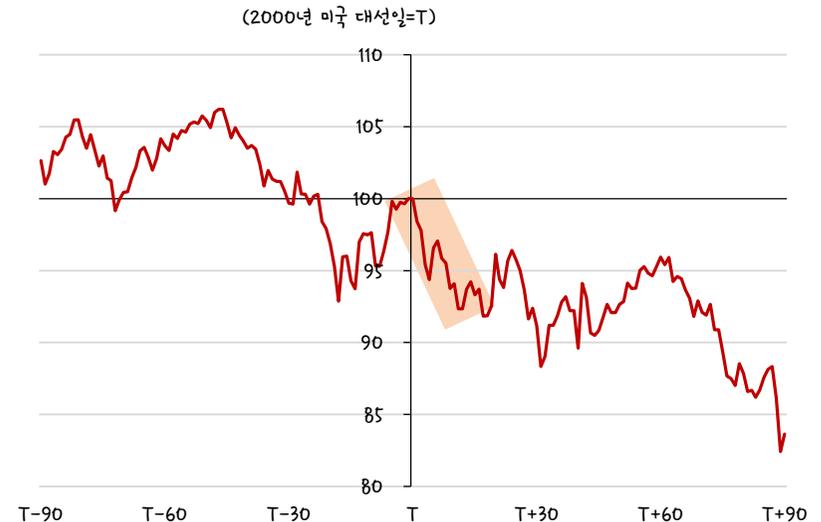
-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의 별세로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후임에 보수성향의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 임명
- 이로써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성향 6명 vs 진보성향 3명의 인사로 구성
- 트럼프는 선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알 수 없는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으로 갈 것임을 시사
- 실제로 지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재검토는 대법원이 결정했음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자료 : Twitter, SK증권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2000년 대선 전후의 S&P500 흐름



자료 : REFINITIV, SK증권

미국 대법원의 구성



존 G.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보수성향  진보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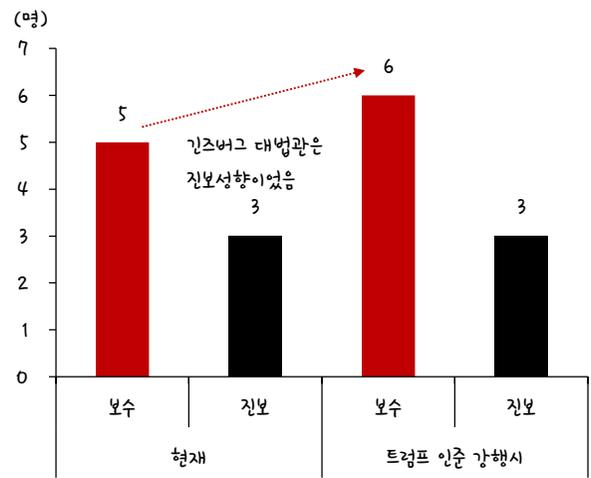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후보
1순위



에이미 코니 배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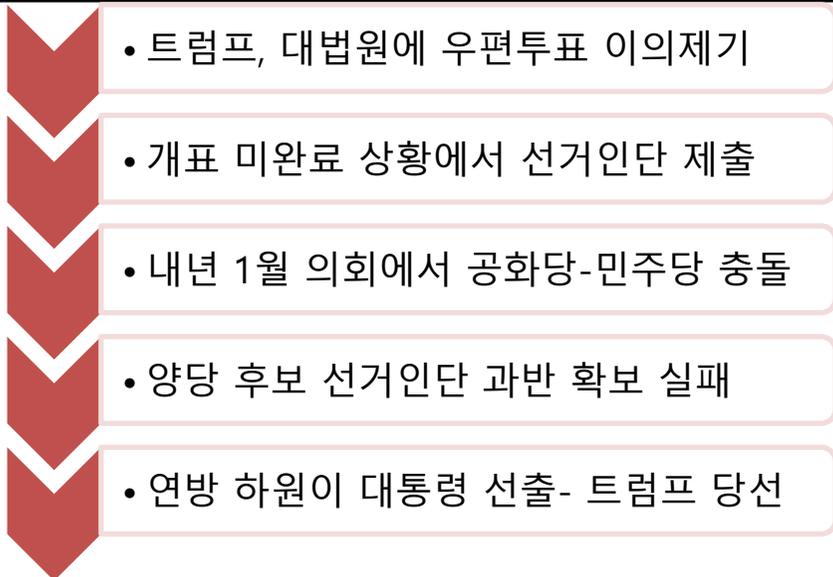


승리를 선언한 트럼프 VS 우편투표까지 개표해야 한다는 바이든

■ 트럼프는 사실상 승리를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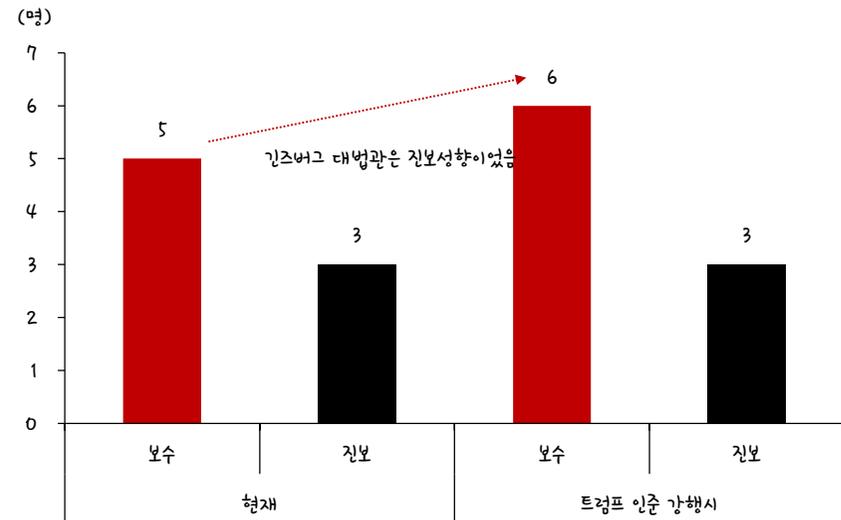
- 트럼프대통령은 현장투표에서 자신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 실제로 주요 경합지역의 현장투표에서 트럼프 앞서
- 트럼프가 우편투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방하원으로 대통령 선출 권한 이양
- 이 경우 헌법에 따라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선출. 50개주는 각각 한표씩 행사
-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26개주에서는 공화당이 23개주에서는 민주당이 의석 수가 많음
-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다다를 것

트럼프의 대선 불복 예상 시나리오



자료 : Washington Post, SK증권

미국 대법관 이념 성향 분포: 보수가 6명으로 다수를 차지



자료 : SK증권

■ 백악관의 주인은 언제 가려질까?

- 미국 대선은 주(州)마다 선거결과를 반영해 선거인 명단을 보내야 함
- 1887년에 제정된 Electoral College Act에 따르면, 대선일로부터 41일 이내에 선거인 명단을 미국 의회에 보내야 함(올해는 12/14)
- 우편투표의 발송과 개표과정을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으로 번질 경우, 주(州)마다 최종개표 결과 발표 지연. 12/14까지 선거인단 명부를 못보낸 주(州)에서는 연방하원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출 가능
-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공을 넘김. 빠르면 12/14, 늦으면 내년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되지 않아 증시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다다를 것

미국의 Electoral College Act

PRESIDENTS WHO WON THE ELECTORAL COLLEGE BUT LOST THE POPULAR VOTE

2016 Donald Trump vs. Hillary Clinton: Won Electoral College, lost popular vote

2000 George W. Bush vs. Al Gore: Won Electoral College, lost popular vote

1888 Grover Cleveland vs. Benjamin Harrison: Won Electoral College, lost popular vote

1876 Rutherford B. Hayes vs. Samuel J. Tilden: 20 contested electoral votes were awarded to the popular-vote loser by a partis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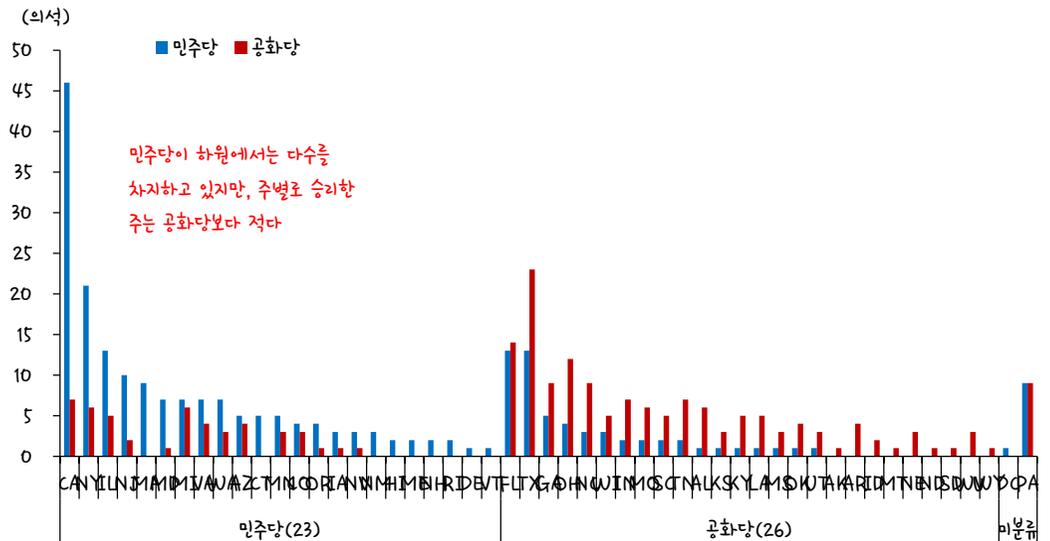
1824 Andrew Jackson vs. John Quincy Adams vs. William H. Crawford vs. Henry Clay: No electoral vote majority winner; presidency decided by House

1800 Thomas Jefferson vs. John Adams: Electoral vote tie; decided by House

Source: NPR

자료 : Represent US, SK증권

미국 하원 분포: 전체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공화당이 앞선 주(州)가 더 많다



자료 : SK증권



Chapter 3.

멈춰버린 시계

▪ 도마 위에 오른 트럼프의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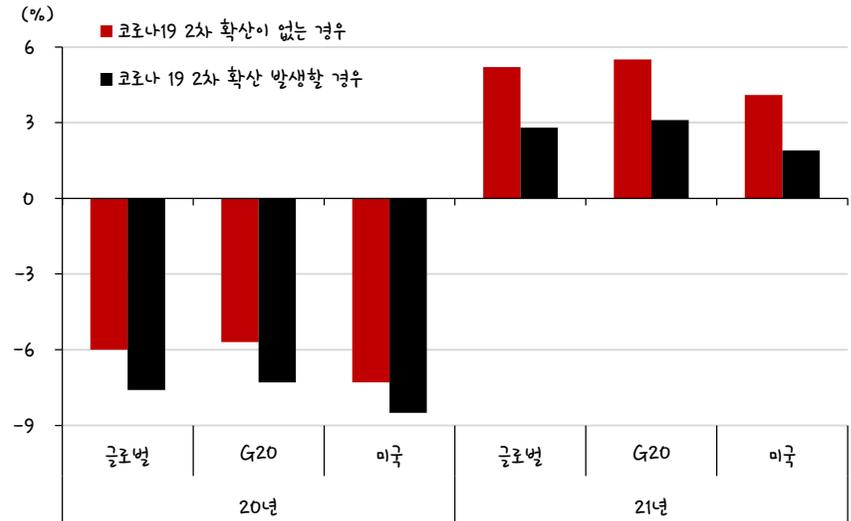
- 미국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1위라는 오명을 썼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이 재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
-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에볼라바이러스 사태를 겪었음(2014~2015년). 사태 초기 우왕좌왕하며 바이러스가 확산됐고, 그의 지지율도 곤두박질. 결국 그 해 중간 상/하원 선거 모두 패배
- 당시 오바마는 에볼라 차르(총괄 조정관)를 지명해 에볼라에 대한 대처권을 부여, 국민과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 위기관리 능력이 부각되면서 임기말판 지지율 60%까지 상승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썼다

국가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사망률
미국	9,307,381	231,674	2.5%
인도	8,313,876	123,611	1.5%
브라질	5,566,049	160,496	2.9%
러시아	1,661,096	28,611	1.7%
프랑스	1,419,295	37,141	2.6%
스페인	1,259,366	36,495	2.9%
아르헨티나	1,195,276	32,052	2.7%
콜롬비아	1,099,392	31,847	2.9%
영국	1,074,761	47,298	4.4%
멕시코	938,405	92,53	9.9%

자료 : WHO, SK증권 / 주: 11/3기준

코로나19 2차 확산여부에 따른 2020년과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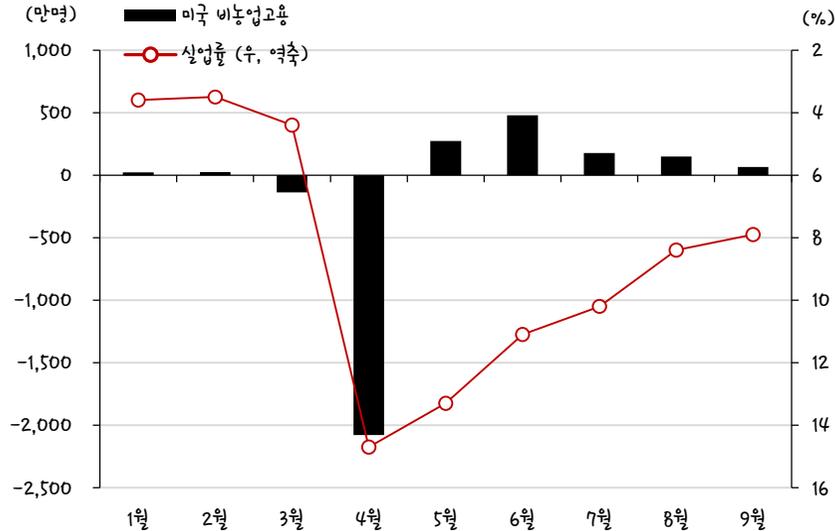


자료 : OECD, SK증권

■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강했던 트럼프에 드리운 코로나19의 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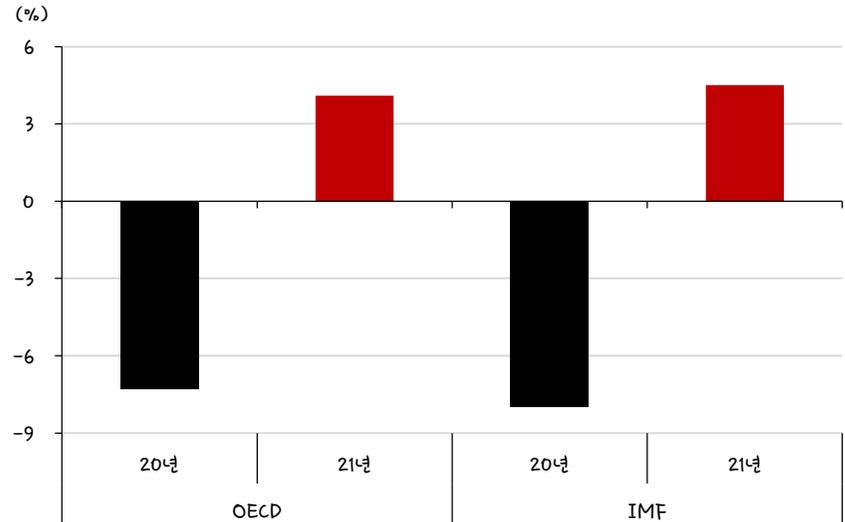
- 트럼프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역풍에 맞서 본인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주장
- 그의 임기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사실
- 하지만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 경제활동 위축
- 고용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회복세 둔화되는 모습 감지. 경제활동 재개 및 성장률 회복을 위해 5차 추가부양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올해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와 실업률 추이



자료 : REFINITIV, SK증권

2020년 및 2021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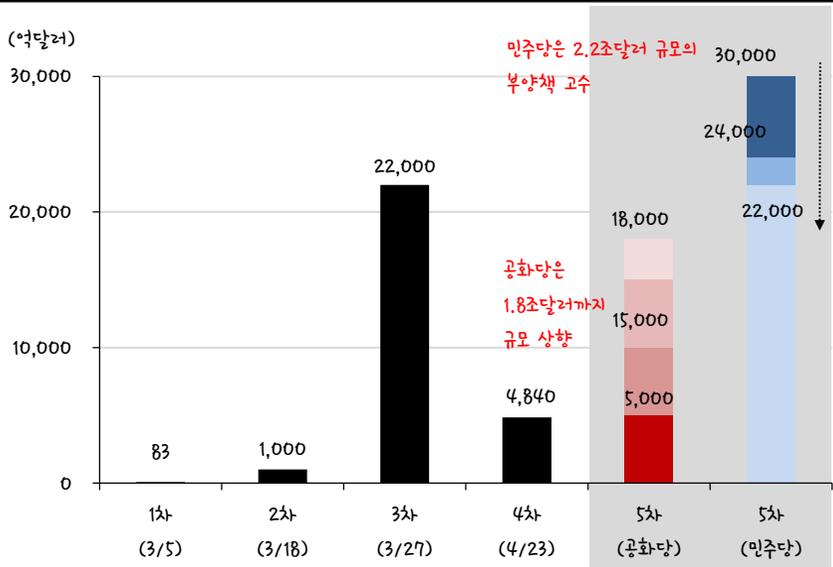


자료 : IMF, OECD, SK증권 /주: OECD 전망치는 코로나19의 2차재확산이 없을 경우

4개월 째 표류 중인 5차 경기부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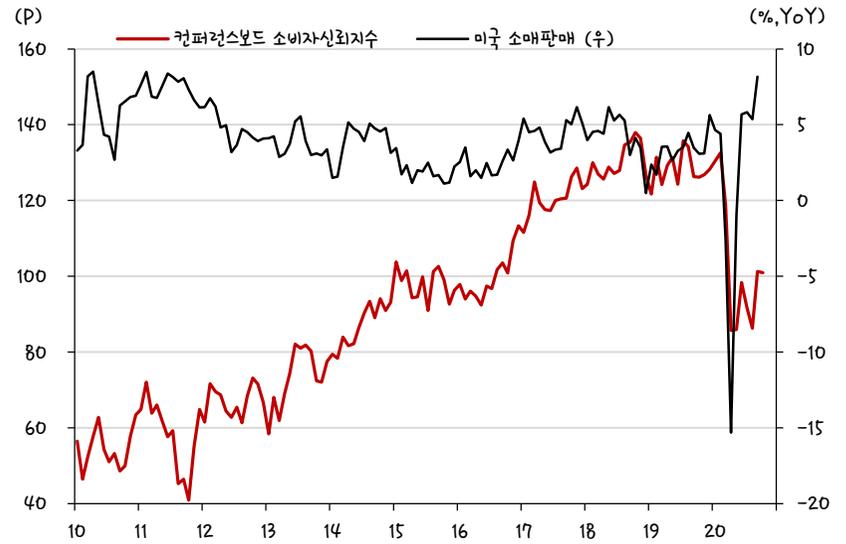
- 5차 경기부양책은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민주당은 처음에 3조달러, 공화당은 1조달러 규모를 주장했으나 2조달러선까지 절충한 마련
-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어 5차 경기부양책은 차기 정권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이슈
- 5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심리 개선 기대

미국 경기부양책 규모 추이와 현재 양당의 입장 차이



자료 : 미국 재무부, SK증권

경기부양책 통과는 소비심리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자료 : REFINITIV, SK증권

대선 이후의 주요 쟁점 ④ 인종문제 및 주요도시 폭력시위

플로이드 사망이 촉발한 인종갈등과 폭력시위

- 지난 5월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제이콥 블레이크의 총격사건으로 미국 내 인종시위 심화. 이로 인해 주요 도시에서는 소요사태 발생
- 이 사건들로 이번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들은 바이든을 선택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총기 판매가 급증하는 등 미국 내 분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이를 잘 봉합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

이번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인종문제 및 주요도시 폭력시위

Moderator Announces Topics for First Presidential Debate

Sept 22, 2020

The first presidential debate will be held on Tuesday, September 29 at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and Cleveland Clinic in Cleveland, OH. The format for the first debate calls for six 15-minute time segments dedicated to topics announced in advance in order to encourage deep discussion of the leading issues facing the country.

Chris Wallace, moderator of the first 2020 presidential debate, has selected the topics for that deb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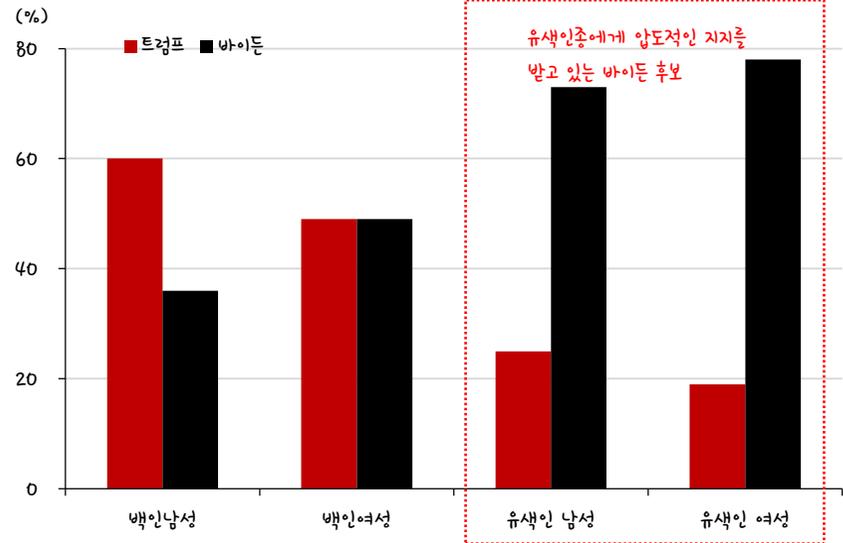
Subject to possible changes because of news developments, the topics for the September 29 debate are as follows, not necessarily to be brought up in this order:

- The Trump and Biden Records
- The Supreme Court
- Covid-19
- The Economy
- Race and Violence in our Cities**
-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All debates start at 9:00 p.m. ET and run for 90 minutes without commercial interruption.

자료 : The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 SK증권

유색인종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



자료 : FOX,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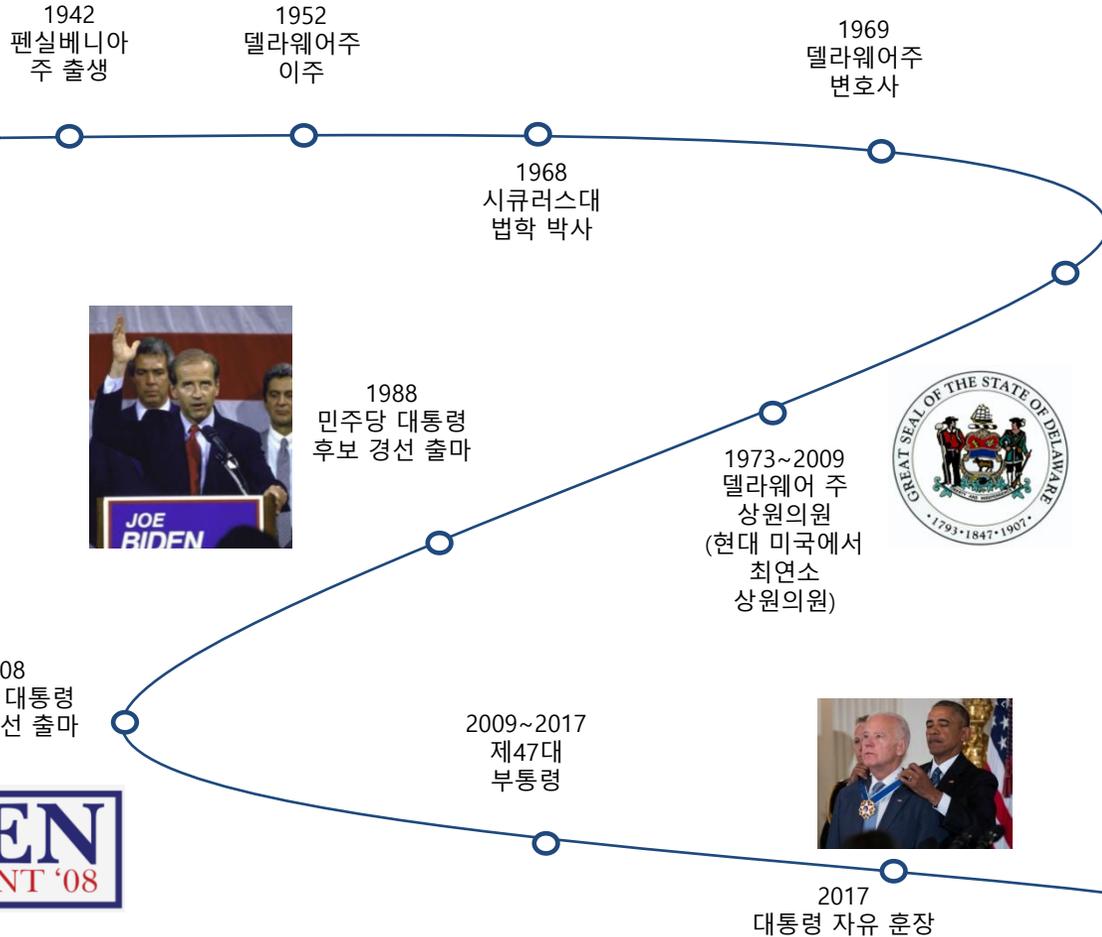


Chapter 4.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Bye Trump, Buy Green

Who is Biden?

조 바이든이 걸어온 길





분야	주요내용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맹국과의 우호적인 통상 정책 ▶ 중국에 강경한 태도. 다만, 새로운 국제사회 규칙 제정을 통해 간접적인 대중 정책 추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을 비판 -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촉구 - 농산물 관세는 철폐하되, 중국의 철강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책 ▶ TPP 재가입 및 확대 강조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중국의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TPP 체결) ▶ USMCA 찬성 및 확대 강조
통화정책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정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21% → 28% 인상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 (ACA) 를 확충한 헬스케어 플랜 지지 (샌더스 후보가 주장한 Medicare for All은 반대하지만 일부를 수용해 메디케어 자격 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스템에 메디케어 같은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 중산층에 세액 공제 지원 → 보험료 인하 및 적용 범위 확장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 플랜에서 세액 공제 혜택 범위를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 가계들도 지원 - 의료적용범위에 대한 제한을 9.86% → 8.5%로 인하 - 골드 플랜의 비용에 근거하여 계산해 세액 공제액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한 커버리지 확대, 메디케이드 확장 미체택 주에 보험료 없는 공공의료보험 옵션 제공 •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계약 외 병원(out-network) 병원 수준의 비용 청구 금지 • 저임금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임금 인상 • 약가 제한 폐지 및 자유시장체제를 통해 경쟁, 타 국가로부터 처방약 구입 허가

바이든의 주요 공약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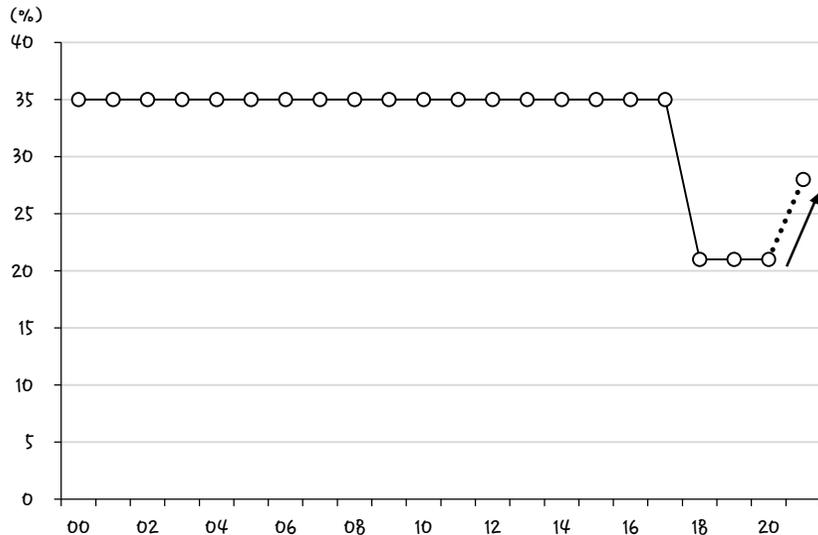


분야	주요내용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포함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지지 ▶ 최저임금 \$7.5 → \$15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39.5%,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 자본소득세 인상 ▶ 부유층 감세 폐지, 소득 40만달러 이상 부동산 투자자에 일부 세금 우대 정책 폐지 ▶ 첫 임기 4년 동안 7천억 달러 중 4천억 달러를 미국산 상품·서비스 등에 이용에 쓸 나머지 3천억 달러는 AI, 5G, 통신 플랫폼, 전기차에 투입될 것
복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교육 예산 확대 (연소득 12만 5천달러 이하 가구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면제) ▶ 커뮤니티 컬리지(2년제) 무상 교육, 지역의 학교 분리 문제 해소를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 재승인 ▶ 장애인 교육법 대상자를 위한 연방 정부 기금 마련 ▶ 10년에 걸쳐 7,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통해 국가 간병 경제활성화, 육아보육 및 노인돌봄 부담완화 ▶ 3~4세 유아를 위한 보편적 유아교육 지원 확대, 모든 노동자에게 12주의 유급 가족휴가·상병휴가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천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 3천억달러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으로 일자리 500만개 창출
치안/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취득기회, 일부 아동 불법이민자는 자동 시민권 부여, 정치적 난민에 심사기회 ▶ 공격용 무기 금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 사형제도 폐지, 보석금 (Cash Bai) 폐지 ▶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찬성하나, 지나친 요구는 분열 야기할 것 ▶ 비핵화 없이 김정은과 만남 불가 "김정은은 독재자"
기후변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기후 조약 지지 (재가입 입장), 2035년까지 발전소탄소 배출 제거 ▶ 탄소 배출 주범국이 배출량 줄이도록 압박,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 투자 → 이를 통해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개 건설 ⇒ 기존 빌딩 400만개와 주거시설 200만개 업그레이드 ⇒ 주택 소유자에 친환경 가구 도입 지원 ⇒ 정부 이동수단 전기차로 변경,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 자동차 소유주에게 친환경 차로 변경 인센티브

▪ 소외 받았던 업종의 반사이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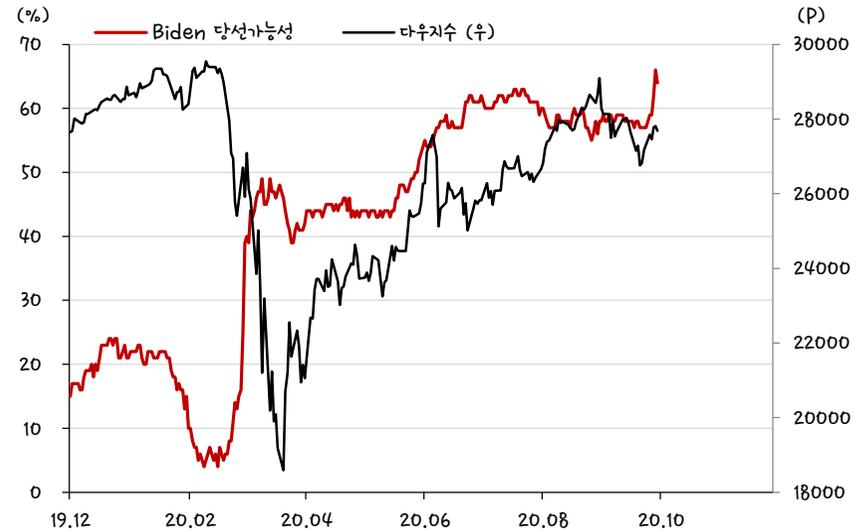
-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해체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 법인세 재인상을 추진하는 등 시장친화도는 떨어진다는 평가 우세
- 특히, 기존 주도주였던 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은 반독점법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
- 반면 그의 공약으로 인해 일부 업종에는 수혜 기대
- 청정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업종은 바이든의 기후정책과 맞물려 반사이익 예상
- 오바마케어를 주장하면서 헬스케어 및 역할 확대 기대감에 보험업종의 반사이익 기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는 점도 보험업종에는 긍정적

바이든 후보는 미국 법인세의 인상(21%→28%)을 주장



자료 : OECD, SK증권

바이든 당선가능성과 다우지수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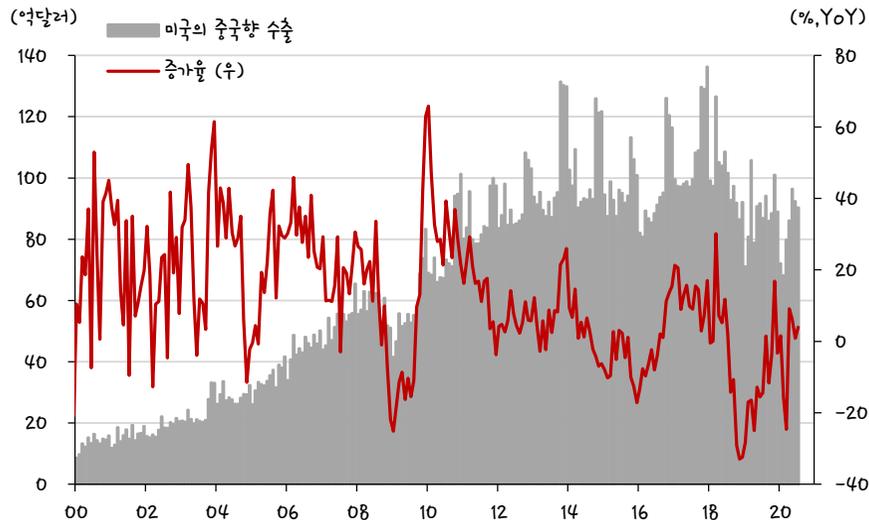


자료 : REFINITIV, PredictIT, SK증권

▪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다자무역 복원을 선언한 바이든

-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실패였다고 주장
-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 구매 등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 펼칠 것으로 전망.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계속될 것
-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 중국의 1:1 구도가 아닌,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타파하고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체결했던 TPP 재가입 및 확대 가능성 높음

미국의 중국향 수출 여전히 부진



자료 : REFINITIV, SK증권

미국의 농산물 수출 역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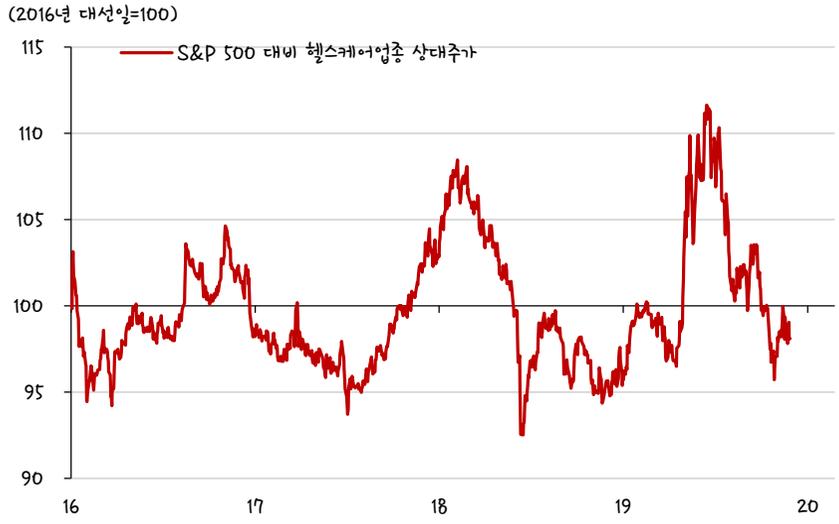


자료 : REFINITIV, SK증권

■ 오바마케어 부활을 선언한 바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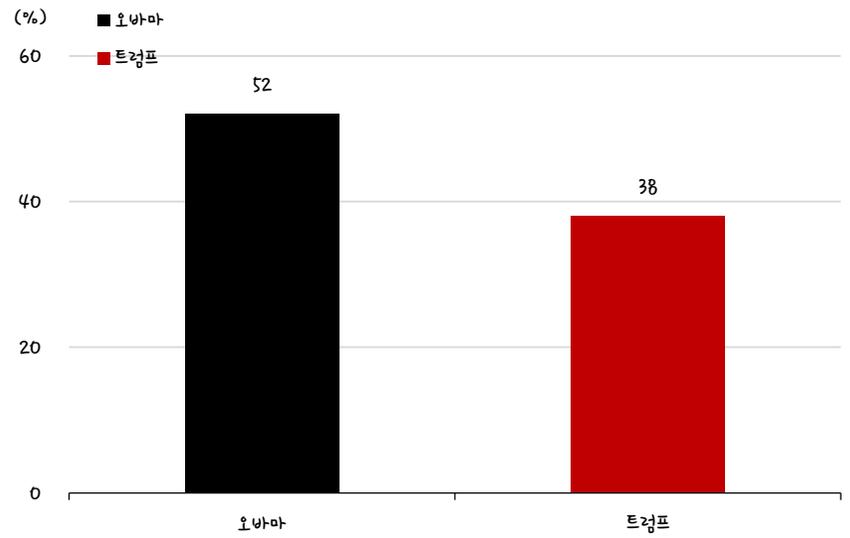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쓴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오바마케어 폐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 따라서 오바마케어 부활 및 확대를 주장
- 오바마케어는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강보험(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케어를 부활하고 확대 및 보완한다는 방침. 미국인 97%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책 목표
- 한편,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중단
-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오바마케어 위헌 여부는 변수

트럼프 부임 기간동안 헬스케어 업종 주가 추이



자료 : REFINITIV, SK증권

코로나바이러스 관리를 누가 더 잘할 것 같냐고 물어봤던 설문조사 결과



자료 : Morning Consult, SK증권

■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수혜 기대

-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음. 기후위기 국면을 인식하고,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시사
- 부임 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의 투자계획 발표
-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 감소를 선언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주장
- 교통분야에서도 탄소배출차량에 대한 규제 시사. 탄소배출 제로 차량을 공공교통시설로 대체
- 공공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전기/수소차 확대 등으로 공기오염 저감 노력 지속할 것임을 시사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청정 인프라 투자계획 주요 내용

주요내용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달러 투입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화한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개 건설

기존빌딩 400만개와 주거시설 200만개 업그레이드

정부 이동수단 전기차로 변경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제공

주택 소유자에 친환경 가구 도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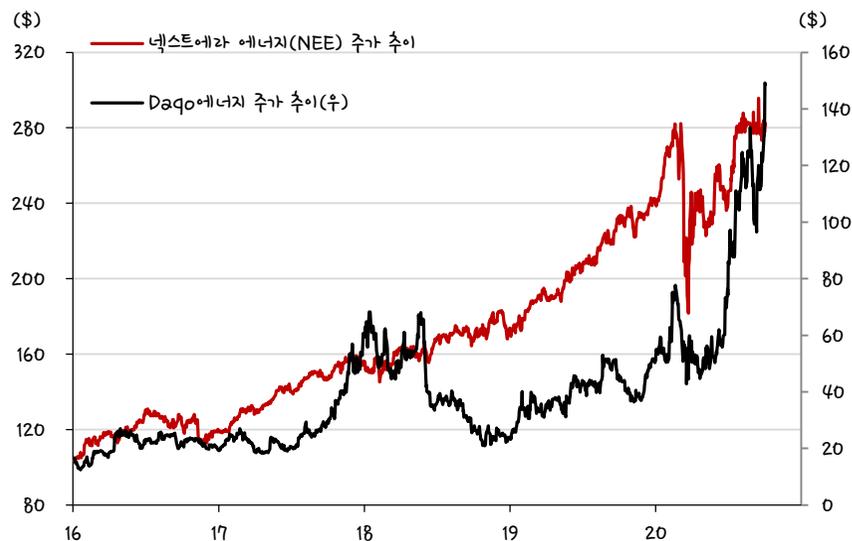
자친환경 차로 변경시 인센티브 제공

2035년까지 전력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0 달성

태양광 패널 및 풍력발전용 터빈 각각 500만개, 6만개 설치

자료 : 바이든 홈페이지, SK증권

주요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주가 흐름



자료 : REFINITIV, SK증권

■ 압박에 방점을 둔 바이든의 대북정책

-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
- 비핵화가 현실화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
- 반면,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와는 달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임으로 TV토론을 통해 시사
-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트럼프에 비해 인상 폭 적을 것으로 예상

압박에 방점을 둔 바이든의 대북정책

트럼프		바이든
대화와 협상	대북 정책 기초	제재와 압박
친서 교환 계속	북·미 정상 친서	친서 교환 중단
조기 재개 추진	북·미 정상회담	북핵 협상 타결 때까지 유보
롭-다운	북·미 협상 방식	바탕-업
배제	전략적 인내 정책	수용
불가	대북 군사옵션	불가
로켓맨-내 친구, 사랑에 빠진 사이, 매우 독특한 협상가	김정은에 대한 언급	살인적인 독재자
미국 우선주의 유지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 강화
대북 증액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현실적 인상
한국에 적극 참여 요구	반중국 전선	한국에 적극 참여 요구
도발 유보 및 관망	북한의 대미 전략	도발 통한 몸값 올리기

자료 : 세계일보, SK증권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핵 정책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롭다운 (협상이 승인된 뒤 실무자협의 후속 협의 및 이행)	협상 방식 단계적 실무협상 거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
	'최대의 압박' 전략 (제재 완화 및 해제 명확한 기준 없음)	대북 제재 모든 핵·미사일 포기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
	제재 집행 강화 위해 필요	중국 역할 제재 집행 강화 위해 필요
	일관되지 않음	동맹 역할 지속적으로 조율
	미-중 관계 및 한-미 동맹	
중국 부상 적극적 견제·패권경쟁 강화	우선순위	중국 부상 적극적 견제·패권경쟁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외교국방	아시아-태평양 전략
전면적 대중 관계 부과	무역전쟁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표적 보복'
중국 5G 기술 견제 및 동맹과 공조	첨단기술	중국 5G 기술 견제 및 동맹과 공조

자료 : 한겨레, SK증권

바이든 내각구성은?

▪ 향후 내각 구성이 중요

- 첫 내각구성이 중요. 어떤 인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 가늠할 수 있을 것
-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역임했었던만큼, 오바마 행정부 때 인사들 대거 발탁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첫 번째 행정명령에도 관심
- 과거 트럼프는 부임 이후,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바이든 후보가 중용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이너서클

 <p>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5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국무장관 후보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바이든과 이미 호흡 맞춘 	 <p>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 ▪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북핵 정책에 관여 	 <p>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버드대 교수 ▪ 부유세·탄소제로 정책 등 주창 	 <p>마셜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국방장관 후보 ▪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국방 고문 	 <p>헤더 부세이 워싱턴군형성장센터 설립자(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불평등 악화 등을 연구한 진보 경제학자
---	---	--	--	---

과거 오바마 내각 때 주요 인사들

오바마 행정부 1기 내각 '라이벌의 팀'

 <p>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2008년 대선 민주당 경선 오바마 상대후보</p>	 <p>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맡고 있었음</p>	 <p>티머시 가이타너 재무장관 부시 행정부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지냄</p>	 <p>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CIA 국장 공화당 출신</p>
---	---	--	---

오바마 행정부 2기 내각 '동지의 팀'

 <p>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에게 기조연설 기회 줌</p>	 <p>릭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 2008년 오바마와 아프간 이라크 순방 동행</p>	 <p>제이컵 루 재무장관 지명 예정자 최근 1년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오바마 보좌</p>	 <p>존 브레넌 CIA 국장 지명자 최근 3년 동안 백악관 대테러 보좌관 맡음</p>
--	---	--	--

자료 : 동아일보, SK증권

자료 : 동아일보,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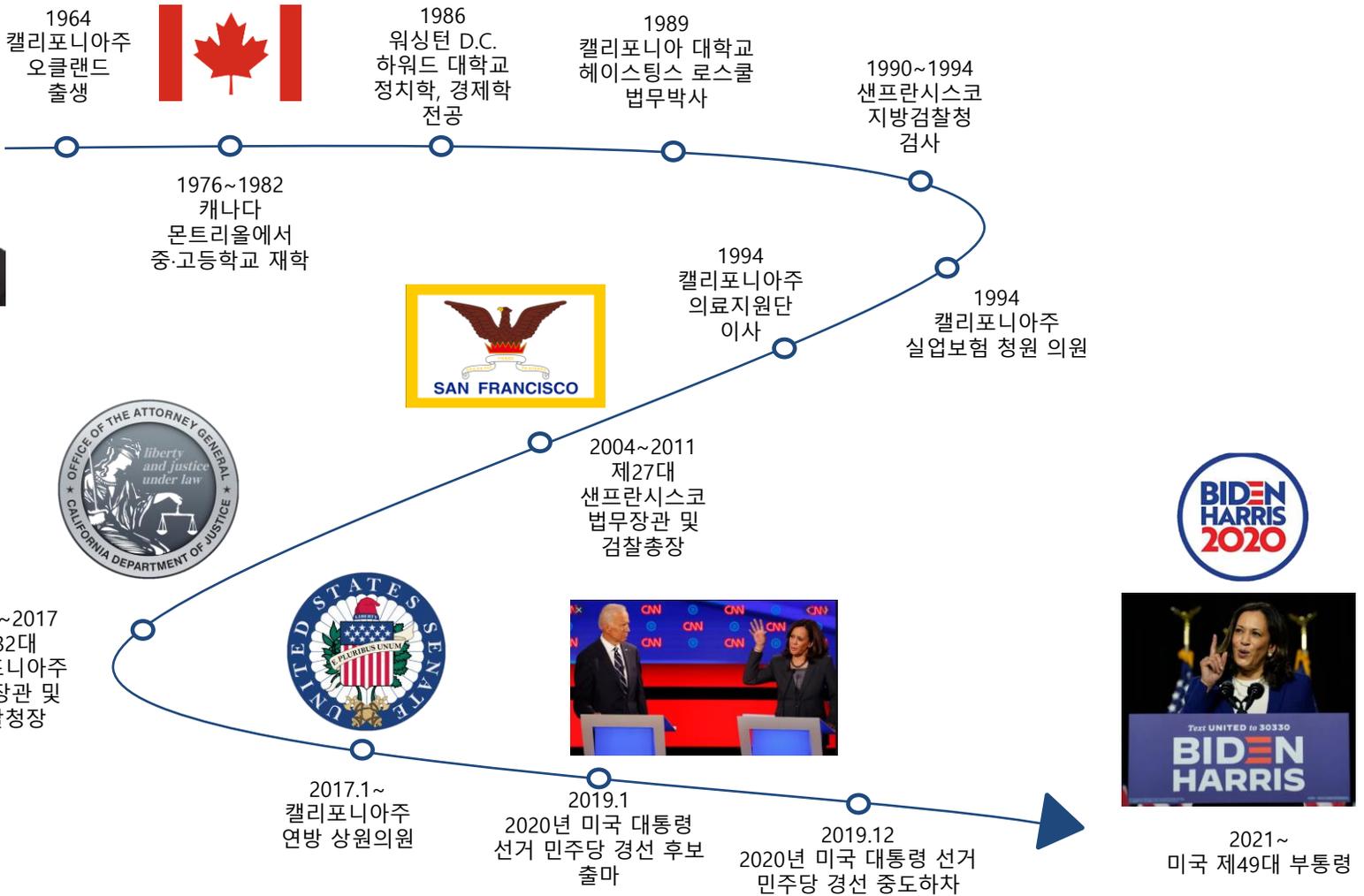
특히 재무장관이 누군지에 관심

바이든 당선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이름	경력	주요 멘트 & 입장
	<p>▶ 엘리자베스 워런 (Elizabeth Warr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 (2013-현재) 대통령 보좌관 및 재무부 장관 특별자문 (2010-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글, 아마존 등 초대형 IT업체 해체 주장 대형 은행 분할 및 규제강화 주장 부유세 부과 주장 주립대 등록금 면제 및 학자금 대출 탕감 주장 전국민 건강보험 지지
	<p>▶ 라엘 브레이너드 (Lael Braina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 이사 (2014-현재) 국제업무 담당 차관 (2010-2013) 스펠링 국가경제위원장 보좌(클린턴 행정부) MIT 경영대학원 교수 (1990-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경제회복이 고르지 않아 재정부양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 K자형 회복을 전반적 회복으로 바꾸기 위해 특정 타깃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 주장 자본을 보존하기 위해 은행들의 배당금 지불 반대
	<p>▶ 로런스 D. 핑크 (Lawrence D. Fin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랙록 CEO (1988-현재) 퍼스트 보스턴 채권부서 입사 후 상무이사 (1976-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운영해야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입장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지속 가능성 리스크에 대처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시간이 갈수록 더 회의적으로 변할 것이며, 그 결과 자본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
	<p>▶ 자레드 번스타인 (Jared Bernstei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정책우선주의센터(CBPP) 수석 연구원 (2011-현재)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수석이코노미스트 (2009-2011)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1995-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의 무역적자는 경제 전반을 끌어내릴 위험이 크다" 강력한 재정 부양을 통해 코로나19 구제책 마련 주장 특히 기후 변화와 보육 분야에 재정 투입 지지

Who is Kamala Harris?

카말라 해리스가 걸어온 길 : 바이든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관심도 높음



카말라 해리스의 정치/경제 성향



해리스의 정치/경제 성향

	해리스의 정치/경제 성향
인종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출신 유방암 전문과학자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아버지(이민자 출신 부모님)사이에서 출생 ⇒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의회에 진출한 후 흑인 의원 모임에 참여 ▶ '19년 6월 토론에서 바이든에 Busing 정책 (흑인,백인 학생이 섞이도록 버스를 이용해 서로 다른 학교로 실어나르던 정책) 에 반대했다는 사실 비판 ▶ 민주당 경선 당시, 흑인들의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1,0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공약 ▶ 최근 백인경찰의 강경대응으로 흑인이 숨지는 사건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 격해지자 '목누르기 금지 등' 포함된 경찰책임법 개혁안 주도
재정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브프라임 위기로 피해를 본 주택담보 대출자들에게 200억 달러를 지원하는 합의 이끌어냄 (2011,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시절) - 대형은행들과 대립한 이력 ▶ 다만, 은행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진보 성향의 의원처럼 강경하지는 않음 (샌더스 상원 의원과 워런 상원 의원처럼 반(反)은행적 기절은 갖고 있지 않음) ▶ 프라이머리 캠페인 당시 '재정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진보적' 이라는 평가 (WSJ보도) ▶ 빅테크 기업에도 다른 진보 성향의 의원처럼 강경하지 않음 (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가 실리콘밸리의 조용한 동맹자가 될 것' 이라고 평가) ▶ 민주당 경선 당시, 중산층 세약공제를 통한 생활비 절감 주장. 'Big tax proposal'은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중산층 감세에 초점
무역/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은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며 미국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음. 홍콩 인권법을 2019년에 공동 발의. 중국이 미국 기업권을 훔치고, 값싼 제품으로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있다고 생각 ▶ USMCA 반대(기후변화 등 환경보호 조항이 미흡한 것을 우려해 수정된 USMCA 이행법안에 반대), 기후변화 및 북핵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파트너십 중요 ▶ 민주당 경선 당시, 환경,노동, 협상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TPP 반대 ▶ 북한에 대해 강경파. '협상 보다는 '압박'이 효과적이라는 입장.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값이 OECD 회원국 가격보다 비싸거나, 가격 인상폭이 당해 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모든 약물에 대해 미국 복지부가 '공정 가격' 책정할 것 주장('19년 7월) ▶ 만약 제약사가 공정 가격을 넘겨 약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통해 번 이익분에 대해 100% 세율로 과세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 제시 ▶ 민주당 경선 당시, 샌더스 상원의원과 메디컬 케어를 공동 발의했으나, 민간 보험을 종료하지 않고 의료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 '카말라케어' 정책 발표 (바이든과 샌더스 사이의 중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경선 당시, 'Green New Deal'을 지지. 10년동안 청정에너지 전환에 10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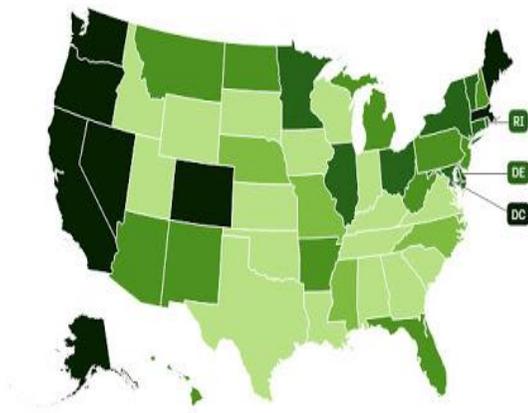
마리화나 합법화는 탄력을 받을 것

-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TV토론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혀
-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역시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완화 입장 밝힌 적 있음
- 마리화나는 미국에서 주(州)마다 규제가 다름.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오락용 대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州)가 더 많음
- 바이든 당선으로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마리화나 관련주는 단기 모멘텀 형성
- Canopy Growth, Tilray, ETF 중에는 MJ와 YOLO 티커를 가진 ETF에 관심

미국 주별 마리화나 합법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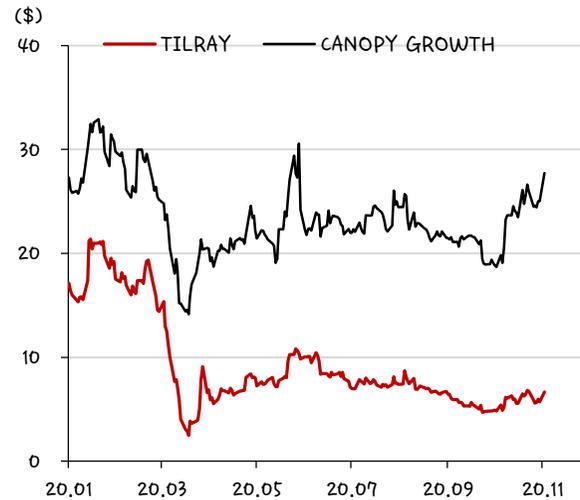
Marijuana laws in the US

■ Legalized
 ■ Medical and decriminalized
 ■ Medical
 ■ Decriminalized
 ■ Fully illeg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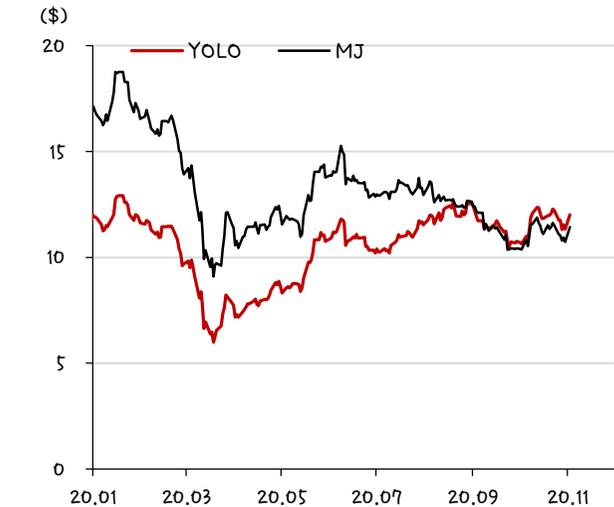
자료 : Marijuana Policy Project, SK증권

마리화나 관련 주식의 주가 추이



자료 : REFINITIV, SK증권

마리화나 관련 ETF 주가 추이



자료 : REFINITIV, SK증권



중국 견제
(다자외교)

자유무역

연준 독립

법인세 인상

오바마케어
부활

청정에너지
투자

- 법인세 인상은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 테크 및 플랫폼 기업 불리
- 신재생에너지에 2조달러 투자 약속.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리
- 오바마케어 부활로 헬스케어 업종도 긍정적
- 국내: 반도체 등 수출주, 전기차배터리

바이든 당선 시 수혜 예상 종목들로 구성된 Bloomberg ML Biden Inex

Bloomberg ML Biden Inex 구성종목

	종목명	시총 (십억 달러)	P/E	P/B	EPS	당기순이익 (십억 달러)			개요
						'19	'20F	'21F	
유틸리티	넥스트에라 에너지	143.4	34.0	4.0	2.2	6.6	4.5	4.9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Inc.)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및 배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풍력, 태양열 및 천연가스 발전을 한다.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또한 자회사를 통해 여러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엑셀 에너지	36,797.8	26.1	2.8	2.8	1.3	1.5	1.6	엑셀 에너지(Xcel Energy, Inc.)는 전기 및 천연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전기 및 천연가스 발전, 수송 및 배급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29,415.1	17.4	1.9	3.4	1.4	1.7	1.7	퍼블릭 서비스 엔터프라이즈(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Incorporated)는 공공 유틸리티 지주 업체. 당사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 북동부 및 중부 대서양지역에서 전기를 발전, 송전 및 배전하며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AES	12,970.1	14.6	5.5	1.4	1.2	0.9	1.0	AES는 발전소 및 전력공급 사업체를 인수, 개발, 소유 및 운영하는 업체. 장기계약 하에 전력을 판매하며 자체 관리 유틸리티 사업 하에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석탄 채굴, 해수의 식수 전환과 대체 에너지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버지	12,511.6	19.4	1.5	2.9	0.5	0.7	0.7	에버지(Evergy, Inc)는 전력 발전, 송전 및 배전 서비스를 제공 업체. 당사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GE 에너지	2,351.3	26.4	2.6	2.6	0.1	0.1	0.1	MGE 에너지(MGE Energy, Inc.)는 공공 유틸리티 지주 회사. 당사의 주요 자회사는 위스콘신 Dane 카운티에 전기를 생성하고, 공급한다. 당사는 또한 여러 위스콘신 카운티에서 천연 가스를 매입, 수송, 유통한다.
	Sunnova Energy Int'l	2,251.7		3.7	-3.4	-0.1	-0.1	-0.1	-0.1
산업재	JOHNSON CONTROLS Int'l	31.4	19.6	1.8	2.3	2.2	1.7	1.8	존슨 콘트롤스 인터내셔널은 건축 제품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에어 시스템, 건물관리, HVAC 제어시스템, 보안, 화재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전 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UNRUN INC	10.2		7.4	-0.0	0.0	-0.0	0.1	선런(Sunrun Inc)은 태양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당사는 태양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소유자의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 모니터링 및 관리한다. 당사는 미국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AECOM	7.2	16.1	2.0	2.9	0.1	0.3	0.4	AECOM(은 미국 정부, 주, 지방 및 미국 외 정부 및 기관, 그리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컨설팅, 기획, 건축, 엔지니어링, 공사 관리, 프로젝트 관리, 자산 관리, 환경 서비스 및 설계-시공 서비스가 포함된다.
	ENERSYS	3.0	18.9	2.3	3.9	0.1	0.2	0.2	에너지스(EnerSys)는 산업용 배터리를 제조, 판매 및 유통하는 업체. 당사는 충전기, 동력 장비, 배터리 액세서리 같은 관련 제품도 제조, 판매, 유통하고 있다. 당사는 산업용 납축전지의 관련 부품 및 고객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DYCOM INDUSTRIES INC	2.1	41.5	2.5	1.6		0.1	0.1	다이콤 인더스트리스는 정보통신 및 인프라 산업에 전문 도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정보통신 사업자와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업체에게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관리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 시설 위치 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BLOOM ENERGY CORP	1.8			-1.5	-0.3	-0.1	0.0	블룸 에너지는 발전장비 제조업체. 당사는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 발전 시스템을 제공한다. 미국의 은행, 헬스케어, 데이터 센터,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음식료, 물류, 기술 및 유틸리티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T	ENPHASE ENERGY INC	12.4	99.8	31.8	1.0	-0.0	0.2	0.2	인페이즈 에너지(Enphase Energy Inc.)는 태양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당사는 태양광 모듈의 생산성 및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SUNPOWER CORP	2.7			-0.6	-0.8	-0.0	0.1	선파워(SunPower Corporation)는 통합 태양광 제품 및 서비스 기업. 당사는 고성능 태양열 전력 기술을 설계, 제조, 판매하는 업체.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 시 수혜 예상 종목들로 구성된 Bloomberg ML Biden Inex

Bloomberg ML Biden Inex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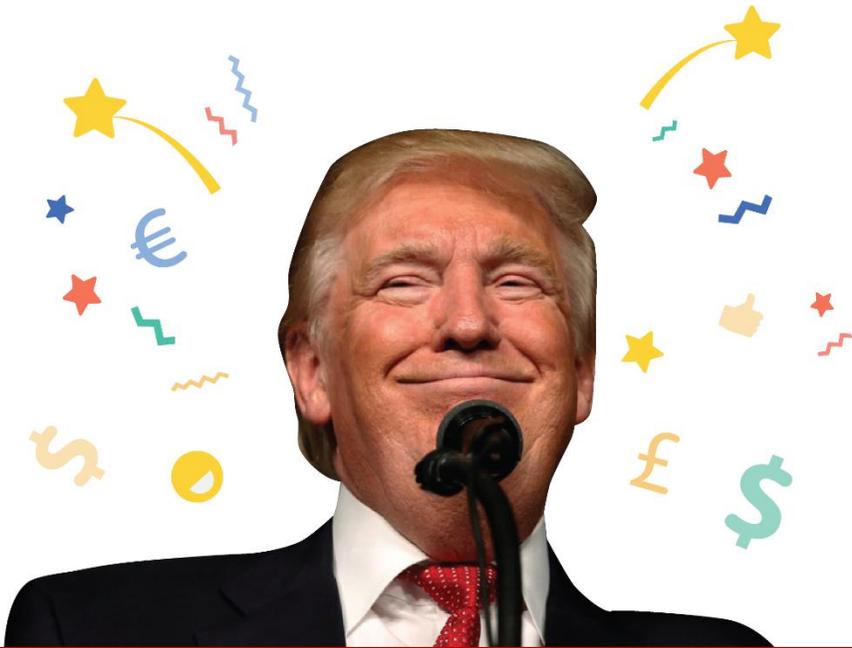
	종목명	시총 (십억 달러)	P/E	P/B	EPS	당기순이익 (십억 달러)			개요
						'19	'20F	'21F	
부동산	AMERICAN TOWER CORP	102.0	53.3	27.9	4.4	1.2	1.9	2.4	아메리칸 타워는 미국에서 무선 통신 및 방송 기지국을 소유, 운영 및 개발하는 부동산투자신탁. 당사는 개인 통신 서비스, 호출 및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무선 통신 산업을 대상으로 멀티테넌트 기지국에서의 안테나 설치점을 임대하고 있다.
	CROWN CASTLE INTL CORP	67.4	85.7	7.3	1.9	0.6	0.8	1.0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은 부동산 투자신탁 업체. 당사는 무선 통신용 통신탑 및 기타 기반 시설을 소유, 운영, 임대하고 있으며, 미국과 호주에서 무선 통신 서비스 및 기반시설 사이트를 관리 및 제공하고 있다.
	SBA COMMUNICATIONS	32.5	760.8		0.4	0.0	-0.0	0.3	SBA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에서 무선통신 인프라를 소유 및 운영하는 업체. 현장 임대 및 개발, 건설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는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다양한 무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사의 멀티테넌트 타워 안테나 공간을 임대한다.
자유 소비재	TESLA INC	367.8	671.6	25.0	0.6	-1.0	2.1	4.0	테슬라는 고성능 전기차와 전기차 구동 트레인 부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자체 판매망과 서비스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기 구동트레인 부품을 타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한다.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TURM RUGER & CO INC	1.2	18.7	5.1	3.8	0.1	0.1	0.1	스텀 루거는 총기 설계, 제조, 판매 및 수출 업체. 당사는 소총, 업총, 권총 및 리볼버를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또한 스포츠 용품 및 기타 군사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장에서 사용되는 티타늄 및 철 주형을 제조하고 있다.
	VISTA OUTDOOR INC	1.1	20.4	2.2	1.0	-0.1	0.0	0.1	비스타 아웃도어(Vista Outdoor Inc.)는 아웃도어 스포츠 및 오락 시장에서 소비자 제품을 다져안,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당사는 Alliant Techsystems Inc.에서 기업분할되었다. 당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SMITH & WESSON BRANDS	0.9	10.8	2.2	1.6	0.0	0.0	0.1	스미스 & 웨슨 브랜드(Smith & Wesson Brands, Inc.)는 총기 제조업체. 당사는 소비자, 법 집행 및 보안 업체를 위해 권총, 리볼버, 전술 소총, 수갑 및 기타 총포 관련 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고 있다. 당사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	ALBEMARLE CORP	9.9	19.3	2.6	5.1	0.7	0.4	0.5	앨버말은 특수 화학제품 생산업체. 당사는 플라스틱, 폴리머 및 탄성중합체를 비롯해 청소용품, 농업용 화학물, 의약품, 사 진관련 화학제품, 시추용 화학물 및 살생물제를 제공한다. 리튬, 브롬, 정제 촉매제 및 응용 표면 처리 분야에 주력한다
	QUIMICA Y MINERA CHIL-SP	8.3				0.4	0.2	0.3	소시에다드 퀴미카 이 미네라 데 칠레는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칼륨을 포함하여 농업용 특수 비료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 당사는 또한 산업용 화학물, 요오드,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100여 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LIVENT CORP	1.6	67.1	3.0	0.2	0.1	0.0	0.0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전지 관련주
	AMYRIS INC	0.5			-1.5	-0.2	-0.3	-0.1	아미리스(Amyris, Inc.)는 화학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업체. 당사는 특수 및 성능 화학 물질, 향미 및 향료, 화장품 원료, 의약품 및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	COSAN	3.2	10.6	3.7	7.6	1.0	1.3	1.5	코산은 브라질의 신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통합 업체. 설탕과 에탄올을 생산하고, 휴게소 네트워크를 통해 연료를 판매한다. 활유 유통 사업과 농지 개발 사업도 운영한다
	RENEWABLE ENERGY GROUP	2.2	17.2	1.8	3.2	0.3	0.1	0.2	리뉴어블 에너지 그룹은 바이오연료와 신재생 화학품을 생산하는 업체. 당사는 바이오디젤과 신재생 화학 제품을 개발, 유통, 판매하며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미국 전역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GREEN PLAINS INC	0.5		0.7	-3.4	0.0	-0.0	0.0	그린 플레인스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에탄올 공장 소유, 운영업체. 연료용 에탄올, 가축 사료 및 산업용 옥수수수유도 판매 및 유통한다. 곡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역 곡물 생산업체에 곡물 취급, 저장 및 상호보완 농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CENTURYLINK INC	9.5	6.4	0.7	1.4	-1.7	1.4	1.4	센추리링크(CenturyLink Inc.)는 가정 및 기업 사업장용 디지털 솔루션 제공업체. 당사는 통신,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솔루션, 음성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든 당선 시 예상 수혜주

바이든 당선 시 예상 수혜주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달러)	P/E	P/B	EPS	당기순이익 (백만 달러)				개요
						'18	'19	'20F	'21F	
친환경 에너지	▶NextEra Energy	135.6	31.9	3.7	8.7	5,380.0	6,638.0	4,475.1	4,875.8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 및 배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풍력, 태양열 및 천연가스 발전 등
	▶Clearway Energy	5.0	-	-	-	-9.0	52.0	156.2	157.7	천연 가스, 이중 화력, 태양열 및 풍력 발전 및 배전 서비스 등을 제공
	▶Renewable Energy Group Inc	1.9	15.4	1.6	3.2	-79.1	292.3	141.2	237.8	바이오연료와 신재생 화학품 생산. 바이오디젤과 신재생 화학 제품을 개발, 유통, 판매
	▶Tesla	412.0	948.0	41.5	0.5	-1,961.4	-976.1	1,784.0	3,318.6	고성능 전기차와 전기차 구동 트레인 부품을 설계, 제조 및 판매
	▶Enphase Energy	8.6	69.5	23.2	1.0	-45.2	-11.6	148.2	209.5	태양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친환경 건설/ 전자재	▶Sunrun	7.7	-	8.4	-0.0	125.5	26.7	-13.7	134.3	태양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ON Semiconductor	8.8	40.1	2.7	0.5	810.7	627.4	285.9	551.1	데이터 및 전력 관리를 위한 아날로그, 표준 로직 및 개별(discrete) 반도체를 공급
	▶Johnson Controls International	31.8	25.3	1.8	1.7	1,611.0	2,162.0	1,636.5	1,749.7	건물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범위의 기술적 솔루션 제공
	▶Honeywell International Inc	118.4	19.9	6.5	8.5	1,545.0	6,765.0	4,875.1	5,433.2	건물 온도 조절 분야의 선두주자
	▶Autodesk	49.4	138.2	733.6	1.6	-582.1	-566.9	615.6	845.8	친환경 건물, 제조 생산, 인프라 및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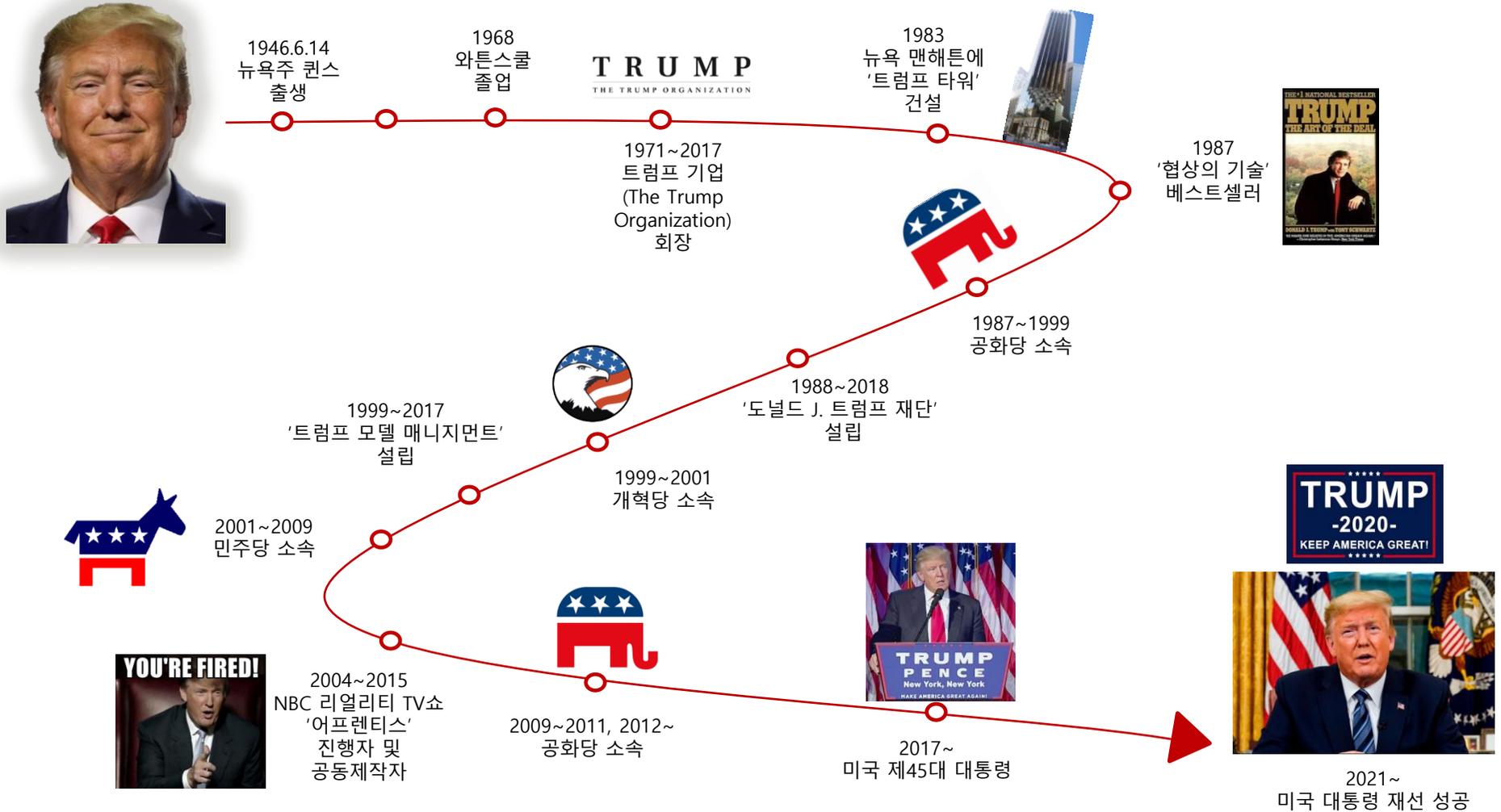


Chapter 5.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시즌2

Who is Trump?

도널드 트럼프가 걸어온 길





분야	주요내용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 무역주의 ▶ 중국 적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 전가 -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 기술 해킹 시도했다고 주장 -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견제 ▶ TPP 폐기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TPP가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의 핵심이며,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 커질 것이라고 주장) ▶ NAFTA 재협상 (→USMCA로 대체)
통화정책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정책 적극 개입. 마이너스 금리 주장
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삭감: 35% → 21% 시행했음 → '17년에 15%로 인하 주장, 여전히 낮은 법인세 주장
헬스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오바마케어(ACA) 폐지 ('17년 1월). ACA보다 값싼 보험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대체할 헬스케어 미완성 단계로 ACA 전면적 폐지는 X) • 단기 및 제한적 기간 플랜 확대 시행했음 • 고용보험을 개선하기 위한 AHP(Association Health Plans) 확대 진행 중 • 마취제, 알츠하이머, 소아 암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 • HIV 유행의 10년 내 종식을 위한 계획 수립했음 •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미가입 벌금 폐지 • 약값 인하 진행 중, 캐나다로부터 약 수입을 허용하는 플랜 발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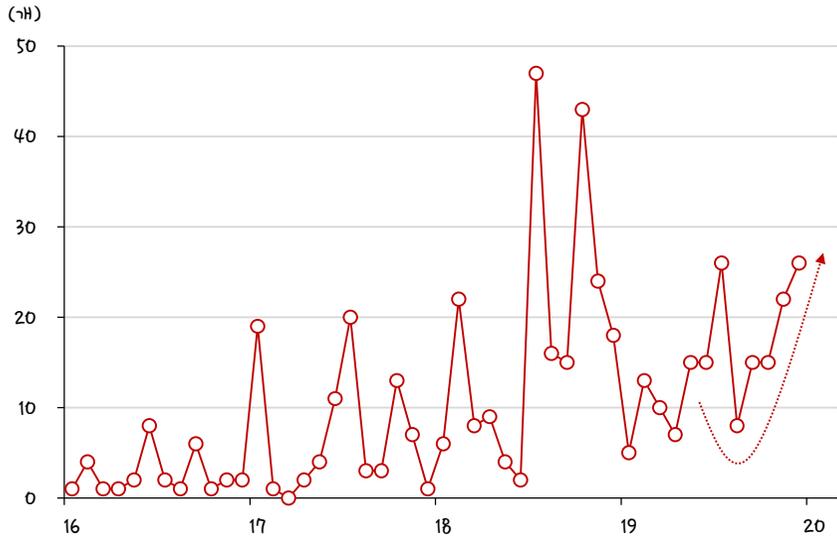


분야	주요내용
세금	▶ 급여세 감면과 자본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감세를 적극적으로 주장
	▶ 코로나발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세율 인하 검토
	▶ 투자세액공제 확대 주장
	▶ 이미 트럼프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6%→37%), 최저한세율(20%) 폐지를 단행
	▶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복지/ 교육	▶ 무상 교육 반대
	▶ 학교 필수 과목제 폐지 찬성
	▶ 차터 스쿨 찬성
	▶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했으나, 2018년 예산안에서 교육 자금을 13% 삭감했음
	▶ 학교 총기 난사 방지를 위해 무장 교직원 지지
일자리	▶ 1조달러 규모 인프라(전통적인 사회기반 시설, 5G 무선 인프라)등으로 일자리 1,000만개 창출
치안/국방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지속,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 추방, 미국 이민 축소
	▶ 총기 구매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
	▶ 방위비 분담금,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해야
	▶ 김정은 체제 인정 "김정은은 나의 친구 "
기후변화/ 환경	▶ 파리기후변화협회 탈퇴 "기후변화 주장은 사기다", "풍력은 암 유발", "에너지효율 제품은 가치 없다 "
	▶ 화석연료 생산 확대 통한 에너지 독립 주장,
	▶ 올해 7월, '국가환경정책법' 규정을 바꿔 각종 건설사업에 속도 내기로 결정 (고속도로와 송유관 건설,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년으로 줄여 규제 완화)

▪ 끝나지 않을 중국과의 패권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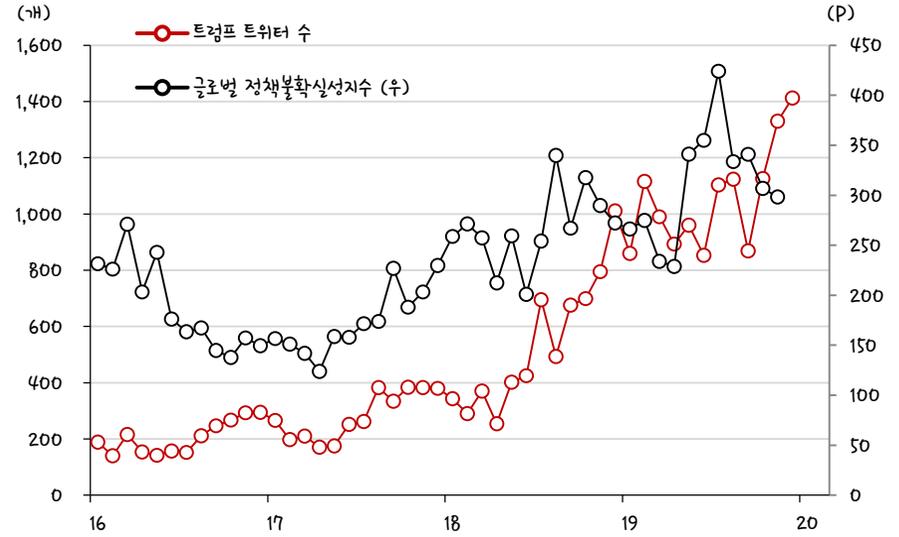
- 트럼프 부임기간 동안, 선진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의 수익률보다 좋았음
- 이는 미중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영향이 컸음. 재선에 성공해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선진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 대비 양호한 수익률 기대
- 따라서 트럼프의 집권 2기에서도 미중마찰은 언제든지 증시에 노이즈가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트럼프 트위터와 중국 언급 숫자



자료 : Twitter, SK증권

트럼프 트위터와 정책 불확실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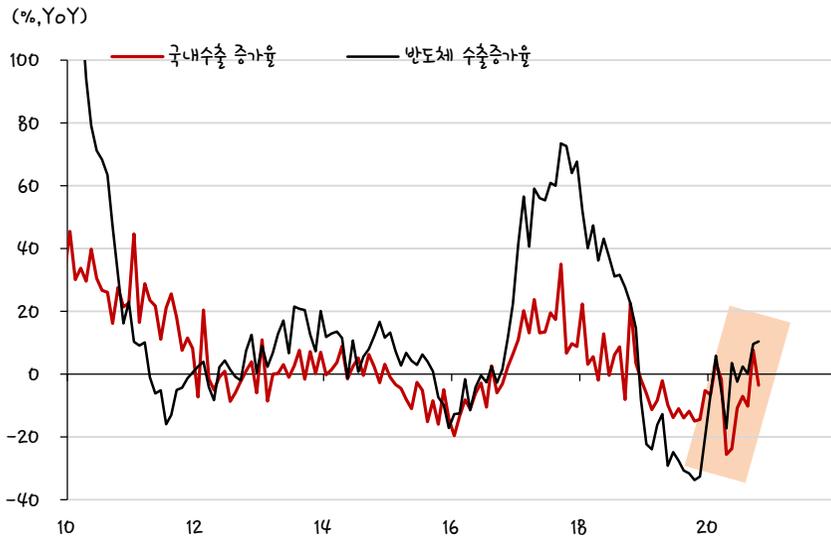


자료 : Twitter, REFINITIV, SK증권

▪ 국내 반도체는 기회가 찾아왔다

- 다만, 국내증시는 반사이익 기대. 당사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국내 반도체 업종의 수혜를 예상
- 이는 트럼프 재선으로 미중갈등이 고조되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국내증시의 매력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요인
- 실제로 국내수출이 반등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 수출이 국내 수출 개선을 견인
- 향후 12개월 선행 당기순이익 추정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



자료 : REFINITIV, SK증권

반도체 업종 12개월 선행 당기순이익 예상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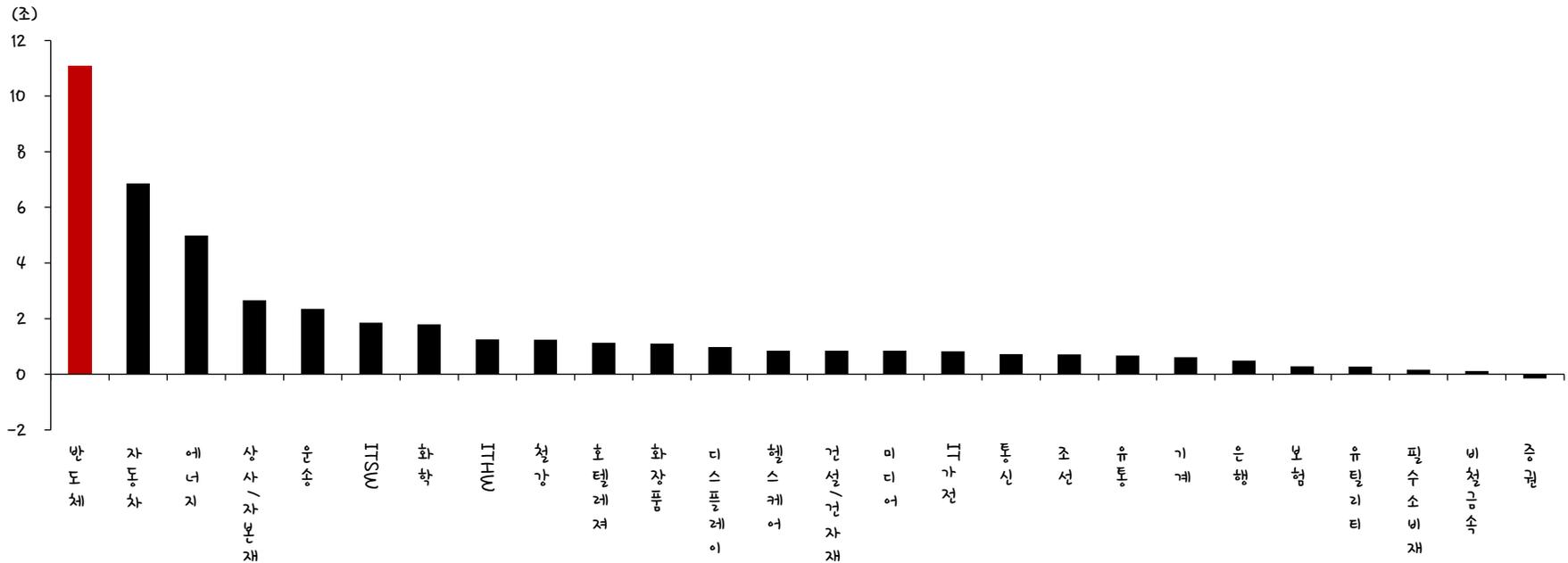


자료 : Quantiwise, SK증권

■ 국내 반도체는 기회가 찾아왔다

- 이를 감안해 반도체 업종은 내년도 실적 개선세가 가장 뚜렷
- 올해 반도체 업종의 예상 당기순이익은 32.7조원 수준. 내년에는 43.8조원으로 +33.9%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국내증시의 대장주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국내증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

2020년대비 2021년 실적 증감의 업종별 비교



자료: Quantiwise, SK증권

▪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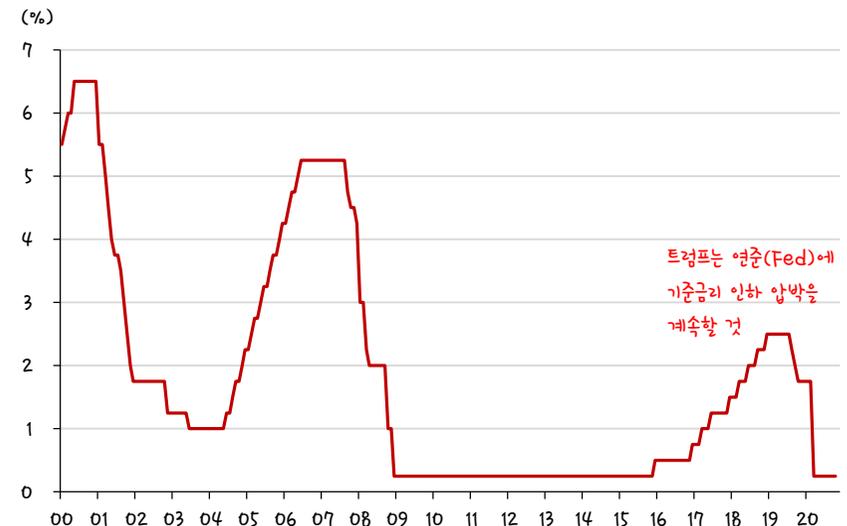
- 트럼프는 여러 차례 트위터를 통해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압박
- 따라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
- 한편 파월 연준(Fed) 의장의 임기는 2022년(4월 예상). 차기 연준(Fed) 의장 역시 저금리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 높아 보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압박한 적 있음



자료 : Twitter, SK증권

미국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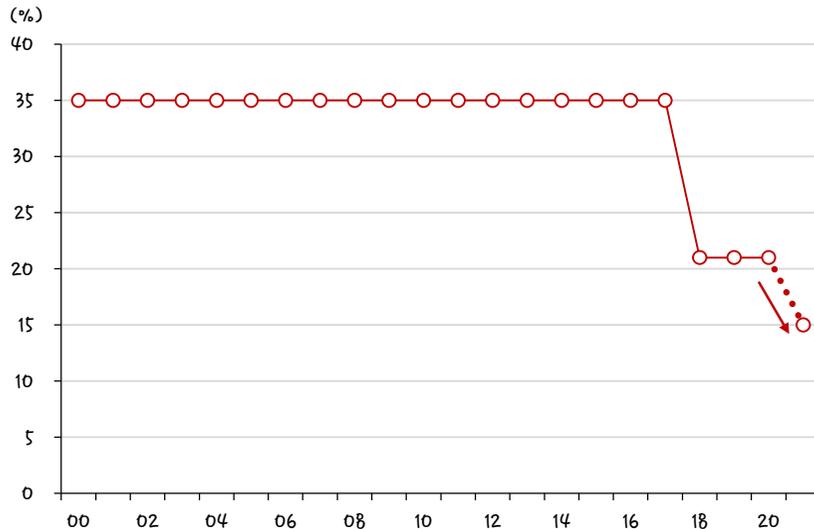


자료 : REFINITIV, SK증권

■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 트럼프는 법인세 추가 인하를 추진(21%→15%)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다수 펼칠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에는 긍정적
- 과거 부임초기에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며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음
-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 연장도 주장(최고세율 39.6%→ 37%, 2025년 연장)
- 양도소득세 역시 인하할 것으로 전망

미국 법인세 추이: 트럼프는 추가 법인세 인하를 예고



자료 : OECD, SK증권

주요 세금정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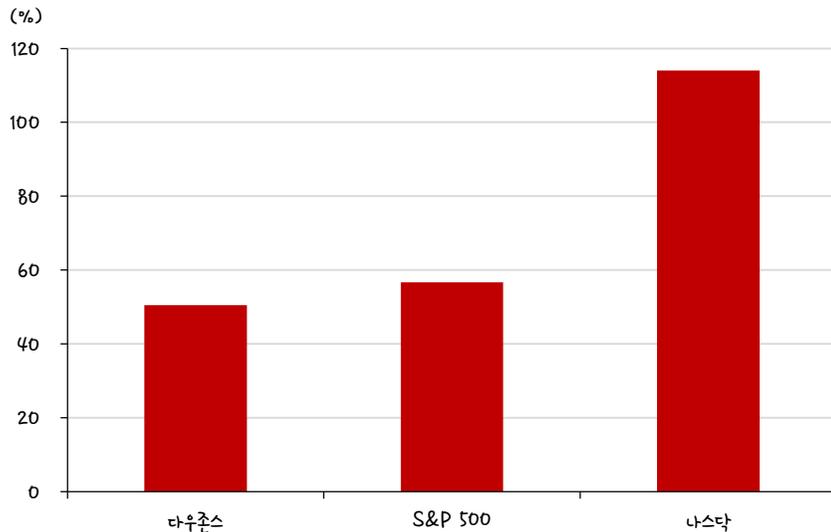
	트럼프	바이든
법인세	현행 21% 유지	28%로 증세
개인소득세	현행 37% 유지 2025년까지 연장	39.6% 인상 40만달러 이상에 대해 사회세 부과
양도소득세	15~18.8% 인하	100만달러 이상에 대해 39.6% 부과

자료 : 각 후보 홈페이지, SK증권

▪ 테크 및 플랫폼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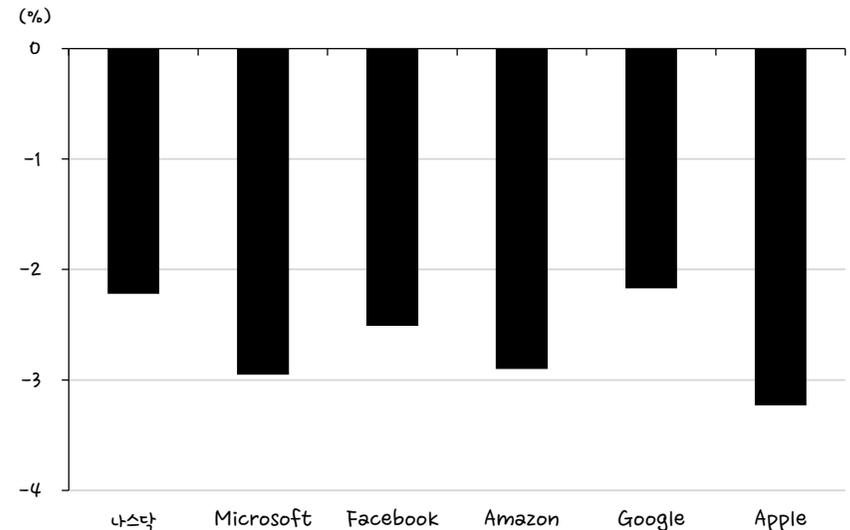
-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된 국면에서 미국 기술주들의 낙폭이 더 컸음.
-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및 바이든 후보의 反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이 작용한 영향
-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테크 및 플랫폼 기업은 계속해서 주도주의 지위를 이어갈 것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테크 기업에 유리한 환경

트럼프 부임기간 중 미국증시 수익률 비교



자료 : REFINITIV, SK증권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당일, 주요 테크기업 일간 수익률



자료 : REFINITIV, SK증권

우주군 창설과 5G 전쟁에서의 승리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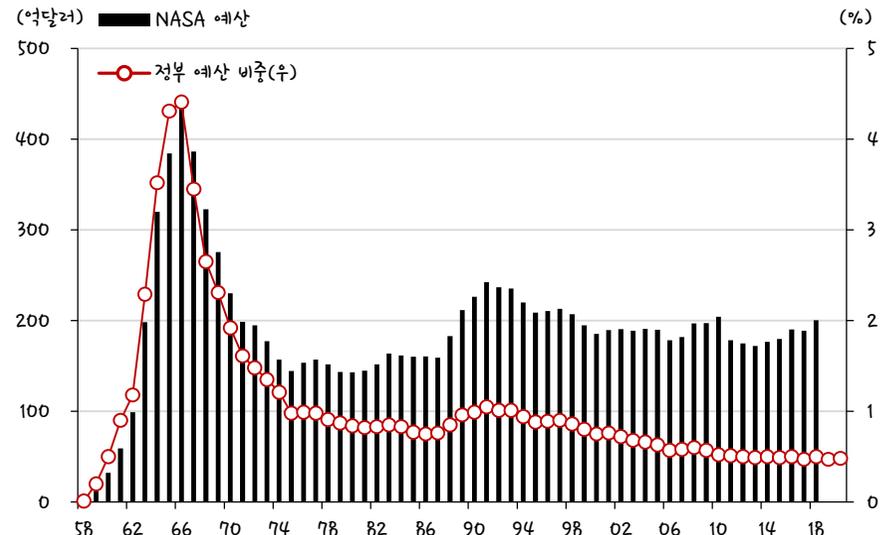
-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투자를 선언했는데 핵심은 5G
- 5G 통신망 확충과 기술개발이 경쟁국에 비해 늦다고 판단한 트럼프 행정부는 초고속망에 보다 손쉽게 미국인들이 접근하기 위해 5G 인프라 투자 확대를 시사
- 우주군 창설도 선언했는데 이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심산
- 5G를 비롯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한 투자는 그의 부임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
- 국내 5G 장비업체도 투자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5G 인프라 리츠인 아메리칸타워와 크라운캐슬 주가 추이



자료 : REFINITIV, SK증권

NASA 예산 추이



자료 : NASA, SK증권

▪ 한반도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올까?

- TV토론에서 바이든 후보의 대북제재 압박 및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북정책을 잘 수행해왔다고 주장
- 집권 2기에도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후보에 비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 고수
- 다만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문제는 여전히 잡음이 나올 것으로 예상

대선 기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입장

I'll make the statement. If and when we win, we will make deals with Iran very quickly, we'll make deals with North Korea very quickly. And whatever happened to the war in North Korea. You haven't seen that have you? If I didn't win the election in 2016, our country would now be, maybe it would be over by now, but in a war with North Korea. Everybody said 'oh Trump will get us in', what now just the opposite. And we actually have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hich is something that was never established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You would have been in a war with North Korea and it would have been a very bad war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과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며 북한과도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자신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어쩌면 지금쯤은 끝났을' 북한과의 전쟁을 했을 것.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지만 그 반대였다.

지난해 8월 뉴저지에서 열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기자회견에서

자료 : SK증권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핵 정책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	
	협상 방식 (정상이 합의한 뒤 실무자들이 후속 협의 및 이행)	협상 방식 단계적 실무협상 거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		
	'최대의 압박' 전략 (제재 완화 및 해체 명확한 기준 없음)	대북 제재		모든 핵·미사일 포기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
	제재 집행 강화 위해 필요	중국 역할		제재 집행 강화 위해 필요
	일관되지 않음	동맹 역할		지속적으로 조율
미-중 관계 및 한-미 동맹				
중국 부상 적극적 견제·패권경쟁 강화	우선순위	중국 부상 적극적 견제·패권경쟁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외교국방	아시아-태평양 전략		
전면적 대중 관계 부과	무역전쟁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표적 보복'		
중국 5G 기술 견제 및 동맹과 공조	첨단기술	중국 5G 기술 견제 및 동맹과 공조		

자료 : 한겨레, SK증권

■ 헬스케어 업종은 여전히 정책 부담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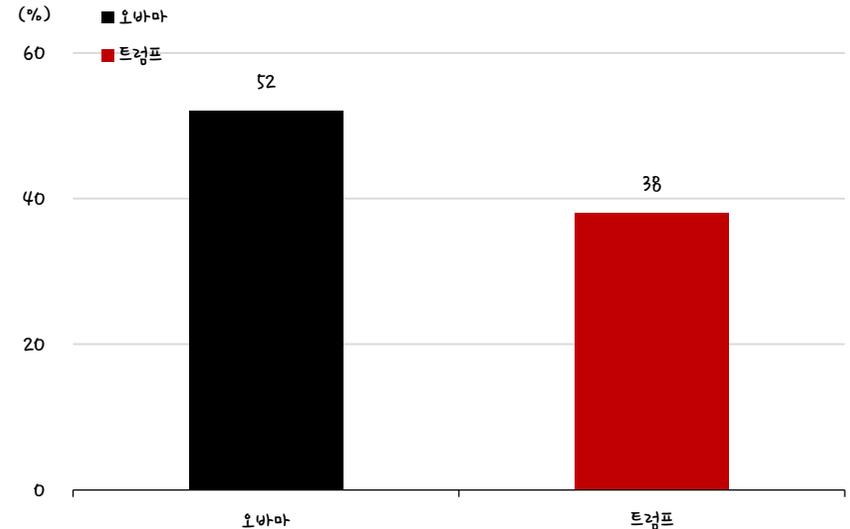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쓴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오바마케어 폐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오바마케어 부활 및 확대를 주장했지만 끝내 무산
- 오바마케어는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강보험(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이었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중단
-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오바마케어 위헌 여부는 변수인데,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부임 기간동안 헬스케어 업종 주가 추이



자료 : REFINITIV, SK증권

코로나바이러스 관리를 누가 더 잘할 것 같냐고 물어봤던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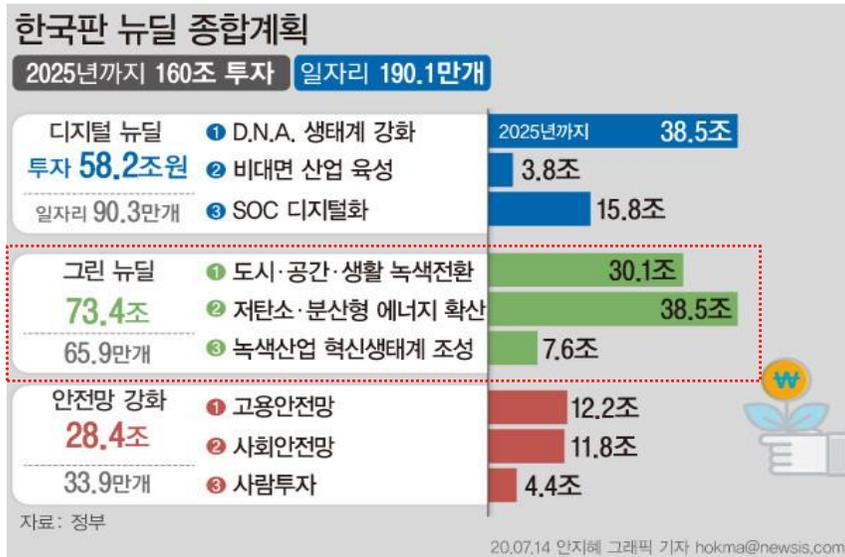


자료 : Morning Consult, SK증권

■ 바이든=신재생에너지, 트럼프 당선으로 속도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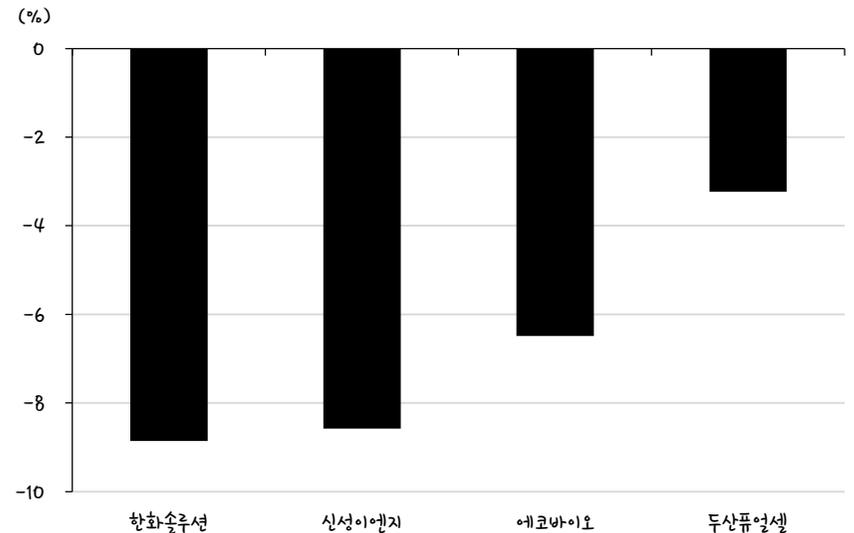
- 바이든 후보는 공약을 통해 당선될 경우, 부임 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의 투자계획 발표
-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 감소를 선언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주장
- 반면,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등 방향성은 분명
- 다만 트럼프의 재선 성공으로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명확



자료 : 기획재정부, SK증권

국내 신재생 관련기업 미국대선 당일 일일 수익률



자료 : Quantiwise, SK증권

기존 정책 유지 + 기존 인물 등용 가능성

- 트럼프의 총애를 받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등은 유임 가능성이 높고,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국장도 여전히 중용될 것으로 예상
- 집권 1기에서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은 여전히 중용될 것으로 기대
-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파우치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해임 가능성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너서클

 <p>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중동정책에 영향력 행사 전망 ▪ 친이스라엘·반이란 노선 고수 	 <p>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 반이민 정책 입안 ▪ 부인 케티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언론보좌관 	 <p>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보국(CIA) 국장 ▪ 2024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 가능성 	 <p>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반중, 반이민 노선 ▪ 집권 2기 국방장관 가능성 	 <p>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국장(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강경 반중파 ▪ 집권 2기에도 경제요직 중용
--	--	--	--	---

자료: 동아일보



중국 적대시
(고립주의)

보호무역

마이너스 금리

법인세 인하

오바마케어
폐지

기후협약 탈퇴

- 기존의 정책에서 큰 틀은 유지할 것
- 테크 및 플랫폼 기업, 5G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유리
- 금융주와 제약업종은 불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은 속도조절 나타날 것
- 국내: 반도체, 5G 및 5G 장비

트럼프 당선 시 예상 수혜주

트럼프 당선 시 예상 수혜주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 달러)	P/E	P/B	EPS	당기순이익 (십억 달러)				개요
						'18	'19	'20F	'21F	
5G	▶ Verizon	245.8	11.1	3.9	5.4	30,101.0	15,528.0	19,071.7	20,461.0	미국 이동통신사 1위
	▶ T-Mobile	138.7	30.0	2.2	3.7	4,536.0	2,888.0	2,653.8	3,340.4	현재 미국 이동통신사 3위 '20년 4월 업계 4위 스프린트와 합병
	▶ Crown Castle International	67.9	87.7	8.2	1.8	445.0	622.0	836.2	1,185.8	미국 통신·인프라 리츠로,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통신 인프라 임대료에서 매출 발생
철강	▶ Steel Dynamics	6.1	11.6	1.5	2.5	812.7	1,258.4	456.1	444.9	미국 복합 탄소강 생산 및 금속 재활용 업체
방산	▶ Lockheed Martin	108.1	13.9	28.7	27.8	1,963.0	5,046.0	6,788.8	7,434.6	우주, 정보통신, 전자공학, 정보 및 서비스, 항공, 에너지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주력사업으로 함
	▶ Northrop Grumman	54.7	15.4	5.6	21.4	2,869.0	3,229.0	3,766.0	4,154.6	글로벌 보안업체로, 항공전자, 정보 시스템 및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시스템 등을 제공
빅테크	▶ Apple	1,920.3	34.2	26.6	3.3	48,351.0	59,531.0	57,145.8	65,003.9	미국 시가총액 1위. 컴퓨터, 이동통신 장비를 다양한 서비스, 주변기기 등과 함께 디자인 및 제조, 판매
	▶ Amazon	1,550.3	119.0	21.0	26.0	3,033.0	10,073.0	24,199.4	31,419.0	미국 시가총액 2위. 광범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소매업체
	▶ Microsoft	1,572.7	35.8	13.3	5.8	25,489.0	16,571.0	43,371.1	49,107.5	미국 시가총액 3위.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라이선스, 판매 및 지원
	▶ Alphabet	980.9	31.8	4.7	45.2	12,662.0	30,736.0	40,060.2	48,680.7	미국 시가총액 4위. 회사를 통해 웹기반 검색, 광고, 지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제공



중국 견제
(다자외교)

자유무역

연준 독립

법인세 인상

오바마케어
부활

청정에너지
투자

- 법인세 인상은 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
- 테크 및 플랫폼 기업 불리
- 신재생에너지에 2조달러 투자 약속.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리
- 오바마케어 부활로 헬스케어 업종도 긍정적
- 국내: 반도체 등 수출주, 전기차배터리



중국 적대시
(고립주의)

보호무역

마이너스 금리

법인세 인하

오바마케어
폐지

기후협약 탈퇴

- 기존의 정책에서 큰 틀은 유지할 것
- 테크 및 플랫폼 기업, 5G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 유리
- 금융주와 제약업종은 불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은 속도조절 나타날 것
- 국내: 반도체, 5G 및 5G 장비